

# 짜을 찾는 예쁜 청춘들에게 당부하는 말

바보대장

소개글

## 목차

|    |                       |    |
|----|-----------------------|----|
| 1  | 2012년 9월 27일 오전 11:39 | 5  |
| 2  | 2012년 9월 27일 오전 11:38 | 6  |
| 3  | 2012년 9월 27일 오전 11:38 | 7  |
| 4  | 2012년 9월 27일 오전 11:37 | 8  |
| 5  | 2012년 9월 27일 오전 11:37 | 9  |
| 6  | 2012년 9월 27일 오전 11:36 | 10 |
| 7  | 2012년 9월 27일 오전 11:36 | 11 |
| 8  | 2012년 9월 27일 오전 11:35 | 12 |
| 9  | 2012년 9월 27일 오전 11:35 | 13 |
| 10 | 2012년 9월 27일 오전 11:34 | 14 |
| 11 | 2012년 9월 27일 오전 11:34 | 15 |
| 12 | 벽을 먼저 허물어라            | 16 |
| 13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44 | 18 |
| 14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43 | 19 |
| 15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43 | 20 |
| 16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43 | 21 |
| 17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42 | 22 |
| 18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42 | 23 |
| 19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41 | 25 |
| 20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41 | 26 |
| 21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40 | 27 |
| 22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40 | 28 |
| 23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9 | 29 |
| 24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9 | 31 |
| 25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8 | 32 |

|    |                       |    |
|----|-----------------------|----|
| 26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8 | 34 |
| 27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7 | 35 |
| 28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7 | 36 |
| 29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6 | 37 |
| 30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6 | 38 |
| 31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5 | 39 |
| 32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5 | 40 |
| 33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5 | 41 |
| 34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4 | 42 |
| 35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3 | 43 |
| 36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33 | 44 |
| 37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26 | 45 |
| 38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26 | 46 |
| 39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26 | 47 |
| 40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25 | 48 |
| 41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24 | 49 |
| 42 | 2012년 10월 6일 오후 02:24 | 50 |

문화충격을 겪는다.

두 청춘 남녀가 만났다. 첫 대면에서 두 주체는 서로가 탐색을 한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두 주체는 탐색전을 끝내고, 서로에게 약간의 호기심을 느낀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경계심을 풀고, 호감을 갖지만, 아직까 지 갈 길이 멀다. 두 주체는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두 주체는 이제 객체가 되어야 한다. 어느 한 쪽으로 속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주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문화 충돌은 어느 일방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 망하면 둘 다 망하는 것이고, 이기면, 둘 다 이기는 것이다. 무승부는 없다. 두 주체는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은 없다. 다 옳은 것이고, 다 그른 것이다. 두 주체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를 얼마나 빨리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긍정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다른 답은 없다. 어느 한 쪽이든,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것은 기차 선로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 충격이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은 현명함을 발휘해, 중매쟁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런 중매쟁이들은 이런 문화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외형으로 보이는 가문이나 혈통 족보를 따졌던 것이다. 그렇다고, 100%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적합한 대상들을 맺어 주었던 것이다. 어느 한 쪽이 너무 기울거나 두드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다. 삼천포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그 동안 내 몸 저 안에 꿈꿨던 숨겨 놓았던, 각자만의 문화가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에 무슨 사단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두 주체는 서로 탐색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조심성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사 평온한 나날들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반찬 투정이 시작된다. 짜니 매우니 덜 익었니 너무 많이 익혔느니... 그저, 평소에는 맛있다고 먹던 것에 소금을 뿌린 것도 아니고, 고춧가루 범벅을 한 것도 아니고, 밥을 태운 것도 아닌데... 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가 가지고 있던 문화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문화 충돌이 무섭고,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두 문화는 각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 자체이기 때문인 것이다. 나머지는 핑계고 이유도 없다. 갖다 붙이고, 둘러대면 되는 둘러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치 두 사람은 헛깨비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것이다. 나중에는 서로 헛깨비에 흠뻑 젖어, 끝장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돌아오지 못할 고개를 넘어서... 그래서, 문화 충돌만은 피하라는 것이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저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고, 98%가 부족해도, 그 나머지 2%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긍정의 힘인 것이다. 긍정은 불가능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 가능성의 세계에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긍정의 힘인 것이다. 긍정은 긍정을 낳고, 긍정은 가능성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이다. 아무리 부정을 하고, 부정에 부정을 더해도, 괜히 나만 피곤해지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긍정을 찾아라.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짜를 찾는 도전자 파팅!

한번 뿐이다

우리나라는 단혼제가, 혼인이라는 의식이 남녀에게 한번 뿐인 나라이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바람을 피운다고 한다. 강아지들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여러 번 짝 짓기를 한다. 간혹, 혈통을 따지고, 가계도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글썽대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강아지들이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서, 살아 남으려는 생존본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무지무지하게 특별한 재능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조금은 과장이 섞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진 학습 효과는 학습 효과가 없어지면, 서서히 퇴화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뭐든지 만들어 붙이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특별한 후천적으로 습득된 학습 효과를 본성이 그렇다고 선전하는 것은, 약간의 과장이 포함되어 포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히틀러 영감탱이가 다른 인종을 핍박한 것처럼... 삼천포다.

백년가약이라고도 한다. 백 년을 변함없이 함께 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인 것이다. 그래서, 서로는 상대방을 뜯어보고 맞춰보고 꺾매보고 하는 것이다. 엄마의 가슴을 빌어 세상 구경을 나온 것보다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엄마 가슴을 빌어서, 세상구경을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선택한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다. 점수를 따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짝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100% 나만의 혼자 의지에 의한 것이다. 물론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내 의지가 강력하게 거부하고, 정작 나에게 선택권이 한 방울도 없다면, 옛날처럼 부모의 선택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폐쇄된 사회에서는, 그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지만, 스스로 홀로 저 쪽으로 건너가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강도를 측정한 결과, 배우자의 죽음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다. 결혼이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각자가 30년 가까이 구축해 놓은, 굳게 닫힌 철옹성의 대문을 활짝 열고, 이방인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것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내가 너고, 너가 나인, 경계나 구분이 없어지는 동지나 동료보다 더,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다. 물론 가끔씩은 대문을 띄엄만 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삼천포다.

요즘은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률이 증가하는 이유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애늬은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황혼 이혼이나, 중년 이혼의 경우엔 환상이 천천히 하나씩 깨지면서, 이것이 누적되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문화 충돌이 발생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신기루를 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이 말라 갈증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신기루다. 그런데, 막상 신기루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오아시스는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다 그런 것이라고, 나를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고, 예쁨이 밉상으로 보이고, 기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찾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내가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상이나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고, 내가 뚜렷한 주체사상을 갖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주체사상을 이웃 망령난 할배가 요상하게 써먹고 있으니..... πππππ

그래서, 혼인 전에, 각자는 이러한 자신의 주체성을 확인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대방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자신의 주체를 찾지 못한다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헛깨비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짝을 찾는 도전자 파팅!

긍정이 크면, 부정도 그만큼 크다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좋음이 있으면, 나쁨도 있다. 양면성만이 아니다. 그 모양이나 크기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성직자와 범죄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양극에 있는 것이다. 남극과 북극이 있는 것도, 균형과 조화인 것이다. 남극과 북극에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 너무나도 자연 환경이 가혹하고, 변화가 아주 적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따뜻한 열대와 온대 지방에 살고 있는 것이다. 변화무쌍한 지역이다. 변화는 자연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남극과 북극도 서로 상반하는 두 극이고, 마찬가지로 성직자와 범죄자도 서로 상반되는 두 극이지만, 그 크기는 같다. 그래야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것도 혼인이라는 것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이란 혼인이라는 것에 속하는 것은 없다. 속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 쓸림이고 편중이기 때문이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소멸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못함, 소멸하는 것은 낭비다. 그것도 그냥 버리는 낭비가 아니다. 균형과 조화를 역지로 맞추려는 노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 마음의 낭비 존재의 낭비인 것이다. 무지무지하게 삶에 인생에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혼과 혼인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낭비를 막는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기 전에, 얼른 공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머리의 이성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슴이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성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마음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이성은 머리는 그저 장식품이 되기 때문이다. 장식품은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해 왔듯이 완존히 속하는 것이다. 아버지 호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다. 박씨가 아닌 바씨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성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친정이나 시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갓집에 속하는 데릴 사위가 되고, 시댁에 속하는 며느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즉, 어느 한 쪽으로 완존히 속해 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기준은 없다. 우월함도 없고, 공자 할배도 없고, 하늘 할배도 없는 것이다. 완전한 평등은 양쪽이 다 없는 것이다. 그저 단순한 고유한 객체만이 있는 것이다. 모두 다 같은 것이 평등이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를 가르치는 것, 나누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인 것이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것이다. 균형과 조화를 만드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다. 지금처럼 우주가 안정된 변화를 만드는데, 100억년이 걸렸다. 앞으로 100억년이 흐르면, 다시 균형과 조화가 완전히 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혼과 혼인 생활도 마치 이러한 변화의 주기를 갖는 것이다. 빅뱅과 같은 것이다. 결혼이라는 두 주체의 문화 충돌은 계속 되는 충돌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계속되는 충돌 속에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안정이 지금의 우주 상태와 같은 것이다. 그것도 잠시, 짧은 안정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계속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태양이 지구를 끌어덕 삼키듯이, 두 주체는 합쳐져서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예쁜이 엄마아빠로... 예쁜이 할아버지 할머니로...

짜를 찾는 도전자 파팅!

그것도 욕심이다  
(대타는 항상 있다)

첫 만남 후에 서로는 다가간다. 탐색은 계속 된다. 좋은 것, 나쁜 것,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장점 단점, 예쁜 것, 미운 것... 탐색을 계속하다. 어느 날 콩깍지가 씌워진다. 그러면, 그것만 보인다. 콩깍지가 마술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단점, 미운 것이 몽땅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대신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그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변신해 버린다. 머리의 이성이 마음의 감정으로 갈아 타는 것이다. 콩깍지의 변신술의 위력은 대단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가슴이 움직이는 감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머리의 이성이 깨어나서, 감정을 누르려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찾아오는 순간에 불과하고, 소용 없는 생각인 것이다. 왜냐하면, 머리는 뇌의 회로라는 실체가 있지만, 마음 속의 감정은 실체가 없는 매트릭스와 같은 허상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내가 속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에게 속하게 하려는 욕심이고 이기심인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도 속하는, 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빠짐 없이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구름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만 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욕심인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속할 수 없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에게 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에게 대타가 있듯이, 상대방에게도 대타는 항상 있는 것이다. 가끔 이런 평등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만을, 오직 너만을' 하는 것은 탐욕이고 이기심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런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서로가 진짜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만남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 쌍방 통행이 되어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절대로 소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방통행은 상대를 없애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체와 주체 사이에 일방통행이 이뤄지면, 일정기간은 가능하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해 버리는 것이다. 이런 폭발은 대책이 전혀 없다. 마치 팽팽한 풍선에 조금만 더 바람을 억지로 넣으면, 터져서 아무 것도 남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나라는 주체를 명확히 확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주체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태도를 변함 없이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인정과 존중이 이뤄지지 않으면,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찌감치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쓸데 없는 에너지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일방통행은 절대 없다. 일방통행은 일방통행을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둘 다 불행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것이다. 일방통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애늬은이는 원하고 다섯이다. 집에는 칠순을 넘기신 큰 형님과 한 세기를 거의 다 보내신 할마시(엄마)가 있다. 세 사람은 일방통행을 한다. 그래도, 충돌이나 충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각자의 역할을 다 알고 있고,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언의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니 평소에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소통이 되고, 그저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많은 경험과 생활이 몸과 마음에 배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그러니, 욕심을 탐욕을 버려라. 그래야, 상대방을 바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소통은 쌍방 통행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짝을 찾는 도전자 파팅!

따지지 마라

남남이 만나서 서로 탐색을 한다.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나이고, 종교고, 직장이고, 외모고, 학벌이고, 집안, 형제... 따지는 것도 많다. 하긴 오가다 만난 사이니, 가능한 탐색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니,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길가던 강아지가 서로 만나면, 서로 구석구석 탐색하는 것과 같다. 그래야 후세에게 우월한 유전자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고, 결혼 후의 꿈을 이상을 현실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이다. 서로 맞선을 보고, 중매를 해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시키거나 묻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욕심이고 이기심이라는 것이다. 내가 따지는 것은 현재라는 과거의 찌꺼기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통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내일,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탐색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과거라는 헛깨비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것보다는, 미래라는 꿈과 희망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물론 지나온 과거의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나간 과거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를 지금을 시점으로, 지나간 것들을 몽땅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를 과거에 묶어둘 것인지,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한 준비, 시작점으로 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도 선택하거나, 선택해서 나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참고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과거를 묻고 따지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좋지 않은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본능적인 보호본능이 작용하면, 좋은 것, 바람직한 것들 것 나를 포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지지도 묻지도 말라는 것이다.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어제 것도, 지나간 과거로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고 바람직한 것이라도, 쓰레기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쓰레기가 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예 쓰레기통에서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오히려, 쓰레기통을 뒤지기 보다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하늘에 두둥실 떠서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보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먼저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희망과 꿈을 갖고만 있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면, 몽상가인 사람이므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가서, 낮잠이나 한잠 자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좋은 것이다. 따지려거든 과거를 지나간 것을 따지지 말고, 내일 일을 미래의 꿈과 희망을 따지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과거를 회상하고 따지는 것은, 이 애늬은이도 아직 하지 않는 것이다. 자판 두드리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다시 꼬집어 내는 것은, 저 쪽으로 건너가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애늬은이 생각에 저 쪽으로 건너가면,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요파구 것을 기우라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따지거나 묻지도 마라.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는 이 담에 하늘 할배한테 드럽게 혼난다. 별 서면서... ππππ

짜를 찾는 도전자 파팅!

제약 한계는 없다  
(핑계를 만들지 마라)

대부분의 청춘 남녀들은 남녀가 만나기 전에 사전 정지작업을 한다. 학벌 외모 신장 성격... 따져서 스스로 만든 한계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대면을 한다. 그런데, 막상 대면을 하면, 자기의 느낌에 따라서 움직인다. 입력된 자료들은 참고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튀어 나오고, 아니고는 전적으로 첫 인상을 보완하는 백 데이터가 되는 것이다. 첫 인상이 마음에 들면, 백 데이터들의 바람직한 기재들이 작용하여, 음! 확실히 틀린 점이 있군! 하고 작용하지만, 첫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백 데이터들의 바람직한 기재들이 작용하게 되어, 음! 그렇다고 하더니 틀린 것이 없군! 내 생각이 맞았어!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사전에 입력된 백 데이터들은 변함이 없지만, 사전에 벌써 판단한 자료들을 스스로 가공하고 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나는 옳바르다는 자기 합리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컴퓨터는 강통이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문제는 입력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강통 안의 강통이 문제인 것이다. 즉, 내 강통이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중계하는 강통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중간에 중계하는 강통이 자신에게 입력된 데이터들을 자의로 해석한 처리결과를 나에게 전달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는 또 나를 기준으로 하는 변환 과정을 거쳐서 저장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는 토끼를 여우로 만들고, 호랑이를 고양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내 자신인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는 제약과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것을 하지 말고, 그저 갓난아기와 같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받아 들이라는 것이다. 받아 들여진 것은 아무런 가공이나 판단을 하지 말고, 싱싱한 그대로 마음 속에 있는 저장고에 보관해 두면 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백 데이터들을 수집 입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하면 되는 것이다. 소소한 엄마 아빠에 대한 것부터 사회 정치 경제, 세계의 흐름 등등, 그저 생각도 하지 말고, 열심히 경청하면 되는 것이다. 중간에 평가는 금물이고, 부정도 금물이다. 무조건 긍정이다. 왜냐하면, 평가나 부정은 열린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기 때문이다. 잘못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면, 그 때부터는 뜬 구름만 잡거나, 맨 손으로 연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도 모르는 것이라도 상관 없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그저 주절거리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보다 많은 자료들을 얻어내는 것이다.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저, 상대방이 말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머리 속에 메모 해 놓은 것들은, 헤어지면 바로 수첩에 메모를 해 뒀라. 그리고, 수첩을 덮으면서 잊어버리면 된다. 좋았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머리를 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나마,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머리가 수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 그러면, 머리 속에 가득 들어 있는 자갈들이 서로 부딪쳐서, 공명 현상을 일으키면, 귀가 씨끄럽다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강통도 좀 쉬게 하고, 귀도 잠깐이나마 안정을 취하게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객관적인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메모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어찌라고! 없다. 없음이다. 끝!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그래서, 그냥... 제한 한계는 없다.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짜를 찾는 도전자 파팅!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전가를 하지 마라)

나에게 일어 나는 모든 것은 다 내게서 나온 것이다. 모두 다 내가 만들고,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생겨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 지고 생겨난 것이 아니다. 비가 온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올라 간 물방울들이 이 땅으로 돌아 오는 것이다. 갓난아기가 생글생글 웃고 있다. 멍멍이를 보고도 생글생글 웃는다. 눈이 마주치는 것은 다 신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씩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씩 배워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사랑도 미움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다 내게서 나온 것들이다. 다 내게서 나와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자연의 법칙 1조 1항인 것이다. 하늘이 구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물방울들이 만드는 것이다. 하늘은 아무 것도 없는 빈 공간인 것이다. 빈 공간에 구름을 만드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늘로 올라간 물방울들인 것이다. 그리고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이 땅으로 돌아 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에게서 나간 것들은 몽땅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기쁨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미움과 욕심을 부리면, 화와 벌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다. 나에게서 나간 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 자식들에게, 또 그 자식들에게 돌아 오는 것이다. 하늘은 맑고 밝아서, 그 어떤 것도 가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은 그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숨기거나 가두질 않는 것이다. 숨기거나 가두질 않기 때문에 비가 되어, 사방을 적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닮은 사람은 막힘이 없고, 언제나 배시시 웃고 있는 것이다. 가두거나 숨기는 것이 없으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내게로 돌아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조심하고 신중하고 겸손한 것이다. 내가 못나서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멍청해서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신중한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모르는 바보 멍청이들이 나를 앞세우고, 잘난 척을 하며,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내게로 돌아오는 것들은, 모두 다 내게서 나간 것들이다. 그러니,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나간 것들이므로, 혹시라도 그런 말들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자신의 허물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보 멍청이들은 혹시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변명하고, 핑계를 만들어서 갔다 붙이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바보멍청이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바보멍청이 짓을 하면, 이 다음에 저 쪽으로 넘어가서 하늘에게 드럽게 혼난다. 쓸데없이 아까운 인생을 낭비했다고.... 그러니, 혹시라도 나를 비방하거나 헐뜯고 무시하거든, 속으로 바보!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컷등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지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귀를 씻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괜히 귀에 담아두면, 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예쁘게 뛰어 놓고 있는 예쁜이 웃도 지저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몽땅 다 내게서 나간 것들이다. 하늘로 올라간 빗방울이 이 땅으로 되돌아 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좋고 나쁨 소중한 것 귀중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게서 나간 것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마치 빗방울 처럼....

짜을 찾는 도전자 파팅!

속하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무덤을 만들지 마라)

우리들은 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젖먹이 예쁜이는 엄마에게 속하고,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가족에게 속하고, 성년이 되어서는 짝에게 속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예쁜이들에게 속하고, 예쁜이들이 짝을 찾아 내 곁을 떠나면, 밭상에게 속하고, 이렇게 속하는 존재가 삶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디엔가에 속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허공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들이 속하는 것은 하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평등하고, 귀한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짝을 찾아 스스로 속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짝을 나에게 속하게 하려는 아주 못된 이기심이고 탐심인 것이다. 이것은 나를 속하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짝을 자기 혼자만이 점유하려는 탐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속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들이 유일하게 속하는 것은 하늘뿐이기 때문이다. 주체는 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홀로 서는 것이다. 이런 주체들이 우리들인 것이다. 개나리가 예쁜 것은 개나리라는 주체이기 때문이고, 빠알간 장미가 예쁜 것은 장미라는 주체이기 때문인 것이다. 각자의 것들은 다 주체이기 때문에 예쁜 것이다. 산 등성이에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노송 늙은 소나무가 멋진 것은, 당당하게 하늘을 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주체로써... 저 쪽 산 넘어, 물 건너에 있는 망령들린 할배가 주체사상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지나가던 땡칠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땡칠이도 땡칠이로써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주체이고, 짝도 상대방도 주체로써,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그 무엇에 누구에게 속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짝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을 나 혼자만 소유하려는 탐심이고 욕심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없애는 동시에, 짝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애버리는 이중 살인인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바보멍청이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담벼락 밑에 예쁘게 핀 노란 장미를 예쁘다고, 꽃을 꺾어서 꽃 병에 옮겨 놓으면, 노란 장미는 슬퍼서, 금방 시들어 버리고, 죽게 되는 것이다. 요파구 짓꺼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냥 예쁘다.하고 한번 쓰다듬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그 노란 장미꽃이 담벼락 밑에 있는 것은, 그 곳에 있어야 할 자기 자리인 것이다. 이렇듯이 세상 만물은 다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자리를 바꾸어서, 일찍 죽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속하게 만들지 마라. 내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만큼, 상대방도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이다. 존재의 가치가 최우선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고, 탐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속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속하려고 하지 말고, 속하게 만들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저 소중하고 귀한 주체로써,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해 주어야, 내가 높아지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이 보이고, 도야지 눈에는 도야지만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 속에 예쁨이 하나씩 자라게 되고, 그 예쁨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그 예쁨들이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만들고, 입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이다.

짝을 찾는 도전자 파팅!

## 내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누구는 부처를 만들고, 누구는 돼지를 만들고, 누구는 멍멍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젊어서는 아직 만드는 중이고, 젊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다음에 정년 퇴직을 하고, 젊음이 지워지면, 내 마음 속에 키우고 있던 것들이 눈으로 귀로,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얼굴로 나타나는 것은 잘 바뀌지 않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삼사십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방 바꿀 수도, 바뀌지지도 않는 것이다. 우리들은 가끔 욕쟁이 할머니를 만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욕쟁이 할머니들은 대부분 얼굴이 화사하고, 부드러운 인상이 얼굴 하나 가득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욕쟁이 할머니들은 욕이 아니라, 그냥 애정이 가득 담긴 예쁨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애늬은이가 어렸을 때만해도 시골 동네에 가면, 예쁜이들을 개똥이! 말뚱이! 쇠똥이! 하고 많이 불렀다. 예쁜이들을 이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부르는 것은, 귀신이 들으라고, 그래서, 예쁜이들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험한 단어들로 불렀던 것이다. 삼천포다.

나를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고, 내 마음인 것이다. 그래서, 이 애늬은이는 얼마 전부터, 마음 속에 예쁜이를 하나 키우고 있다. 원하고도 절반이나 지나간 나이지만, 그래도 상관 없다. 점쟁이 말마따나, 앞으로 삼십 년은 키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쁜 젊은이들도 늦기 전에 마음 속에 믿음과 신앙을 하나씩 갖고, 키우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키우라니까, 독선적이고, 이타심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다.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마음 속에 예쁨을 많이 많이 키우라는 것이다. 부정을 키우지 말고, 긍정을 키우고, 내가 아닌 상대방을 인정하고, 감싸 안는 예쁜 마음을 키우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다음에 늙어서 예쁜 눈과 예쁜 귀를 가지고 있는 예쁜 얼굴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놀부처럼 못생기고 욕심만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기 싫거든, 이 애늬은이처럼 다 늙어서, 마음 속에 예쁨을 키우지 말고, 젊었을 때, 신앙과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 속에 예쁨이 쌓여서, 눈도 예뻐져서 예쁜 것만을 보고, 귀도 예뻐져서 예쁜 것만을 듣고, 입도 예뻐져서 예쁜 말만 하게 되고, 마음 속에서 예쁜이가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다. 선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다. 그런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미움과 증오, 갈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보 중에 바보인 것이다.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종교나 믿음에는 사랑과 관용과 자비 등을 말하는 것이지, 갈등과 증오, 편가르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삼천포다.

나를 만드는 것은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뿐이 없다. 하늘이 땅이 구름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만들고, 내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조금 조금씩 탑을 쌓듯이,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고, 만들어 나가야 삼십년 사십년 후에 겨우 예쁜 탑 하나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그 탑처럼 예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에 늙어서 예쁜 탑을 갖고 싶고,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거든,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예쁜 젊은이가 되면, 되는 것이다.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버스에 승객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세어보는 할배 할멈이 되든가,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다.

짜를 찾는 도전자 파팅!

과거는 없다

어제는 과거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에 현재 지금은 없는 것이다. 그런 과거라는 헛깨비와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 과거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다. 미래나 과거나 지금 현재 없는 것은 같다. 미래도 내일도 지금 현재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과거는 추억이라는 껍데기가 있는 반면에, 미래는 꿈과 희망이라는 예쁨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현재고 지금이지만, 그 현재와 지금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한, 준비단계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는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미래에 내가 가야 할 꿈과 희망이 없다면, 어제나 내일이나 지금이나, 다 똑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 똑 같은 것이라면, 미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미래가 소중하고 귀한 것은,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와 지금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아무리 높고 예쁜 탑을 쌓고 싶어도, 현재 지금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탑을 쌓을 수 없는 것이다. 미래에 이룩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예쁜 것이지, 이러한 꿈과 희망이 없다면, 그저 지나가는 할배 할멈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라는 헛깨비를 붙잡고 씨름이나 하는, 애늬은이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애늬은이도 아직 과거라는 괴물과 씨름을 하지는 않는다. 벌써부터 과거라는 지나간 헛깨비와 씨름을 하면, 이 다음에 저 쪽으로 건너가서, 하늘 할배에게 드럽게 혼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나가 버린 과거라는 헛깨비와 씨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것이다. 이런 없는 것과 씨름은 물론,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생각도 아깝기 때문이다. 과거에 살지 마라. 오히려, 미래에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이다. 미래는 가능성인 것이다. 가능성은 무한한 것이다. 유한한 것은 가능성이 아니다. 그러니, 가능성의 세계에서 사는 예쁜 젊은이가 되라는 것이다. 예쁜 젊은이는 가능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막힘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도 않는다. 가장 든든한 젊음이라는 황금보다, 아니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과거를 위해서, 지나간 것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는 없다. 이미 지나간 청룡 열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아예 머리 속에서 지워버려야 하는 것이다. 머리 속에서, 가슴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면, 요 놈들은 시도때도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내 마음 속에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예쁨을 뽕뽕잡아먹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엄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예쁨이 잡아 먹히는 만큼,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이고, 껍데기만 남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나갔거든, 그냥 그대로 두어라. 괜히 건드려서, 잠이라도 깨면, 속만 쓰리기 때문이다.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니,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야, 현재를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드는 것이, 지금이고 현재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를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준비하고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만들어지고,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땀 흘려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짜를 찾는 도전자 파팅!

나는 창조주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는 것이다. 창조하는 사람은 가능성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창조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성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 것이다. 가능성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린 사람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고, 불가능성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을 굳게 닫은 사람이고, 자기 자신만을 앞세우는 사람인 것이다. 이 애늬은이가 창조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깐, 하늘과 같이 만물을 창조하는 태초의 창조주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하늘의 영역이고, 하늘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일개 애늬은이가 찌껄이는 것도 불경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애늬은이가 말하는 창조주가 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창조주가 되라고 하는 것이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을 묶어 놓고 있는 것이다. 관습 예법 도덕 습관 등등, 이런 것들에서 가능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하무인 천하의 악동이 되라는 것은 아니다. 그저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들에게서 가장 필요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최소화해서, 보다 많은 가능성, 보다 많은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유연성이 있고, 그런 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사는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찾고, 만들어 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지, 쓸데 없이 지고 지순한 존재인 하늘을 흉내 내고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괜히, 이러한 흉내를 내다가는 이 다음에 하늘 할배한테가서 무지무지하게 드럽게 혼난다. 자기 꼬라지도 모르는 천방지축 망나니 같은 요물이라고, 그러니, 그런 흉내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저, 바람직한 나를 만들어서 보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보다 바람직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먼저 인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 찾아내서, 장점만을 키우고 행해서, 단점이 가려지게 하면 되는 것이다. 단점을 찾아내서,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크게 계속하면서, 단점이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과거는 없다.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나간 헛깨비를 붙잡고 씨름하지 마라. 오히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희망과 꿈을 잡고서, 씨름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이다. 현재 지금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꿈과 희망의 시작점이고, 준비하는 미래에 속하게 할 것인지는 100%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골라 주거나, 선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니, 선택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내가 저 쪽으로 넘어가면, 그 때서야 끝나는 것이다.

짜를 찾는 도전자 파팅!

## 벽을 먼저 허물어라

우리들의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세대간에 개인간에 만들어 놓은 선입관이라는 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벽은 그냥 놔두고, 서로 먼저 벽을 허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은 그대로 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 말 싸움, 말 장난만 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양쪽 다 쓸데 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벽을 허물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쌓아 놓은 벽부터 허물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벽을 허물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벽을 허물었는데도, 상대방은 벽을 허물지 않고, 철옹성 안에만 있으려고 하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는 것이다. 괜한 말꼬리 잡기 놀이나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놀이를 하느니,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한 잠 자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벽을 허물어라.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벽을 허무는지 아닌지 살펴보면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벽을 허물거든, 그 때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부부싸움의 경우에 자주 나타난다. 분명히 주제는 늦게 귀가하는 남편의 문제였다. 그런데, 시작은 늦은 귀가인데, 조금 지나면, 전혀 상관 없는 사돈의 팔촌이 등장하고, 조상이 개가 되고, 늑대가 되고, 심지어는 지옥이 등장하고, 죄 없는 친척들이 총 동원 되는 것이다. 뭐 때문에 싸움이 시작 되었는지, 그 자체도 실종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저, 넘쳐 나는 번두리만 갔다 붙이면 되는 것이다. 그것도 나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만 골라서, 그 결과는? 승자는 있지도 않는 패자들 만이 있고, 그것도 그냥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신창이 쫓돌건인 부부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부부싸움을 하기 전에, 주제를 먼저 정해서, 하얀 백지에 커다랗게 적어 놓고, 부부싸움을 해라. 그래서, 혹시라도, 그 주제를 벗어난 다툼이 발생하면, 주제를 한번 흔들면 되는 것이다. 아니면, 말로 하지 말고, 종이에다 적어 가면서 부부싸움을 해라. 신사는 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면, 나도 신사가 될 수 있고, 숙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은 싸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그럴려면, 벽을 먼저 허물어야 하는 것이다. 나부터...

벽을 허무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나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면,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벽을 허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벽을 쌓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도,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 소통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뒤도 돌아다 보지도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훨씬 이득이다. 쓸데 없는 말 꼬리 잡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혼자만, 소통을 한다고, 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소통은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일방적 받기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말 꼬리 잡기처럼 피곤한 것은 없다.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다.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그저 맞장구나 쳐 주면서, 상대방이 지치길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다. 그것은 차선이다.

짜을 찾는 도전자 파팅!

그래도 보고 싶다

오십하고도 오년을 더 살았으니, 짧게 산 것은 아닌데, 그 동안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보고 싶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처 없는 혼자만의 방랑을 해야겠다. 모두 다 기억 저 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차사장 수일이 형 전서방 박서방……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나를 스쳐 지나간 소중한 존재들 이었다. 워낙 성질이 지랄 같은 애늬은이가 되어나서, 그저 그렇게 잊고 지냈는데, 이제 새삼스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두들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변했을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한 개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몇 십년만에 만나서, 과거의 지나간 헛깨비나 두들겨 잡으면서, 그저 웃고 싶은 것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과거라는 지나간 잊혀져 가는 헛깨비들을 잡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고, 예쁜 젊은이들보고 헛깨비나 잡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절대로…. 과거라는 헛깨비 잡이 놀이는 이 다음에 정년퇴직 하고, 하여야 하는 것이다. 애 늬은이처럼, 편마비(중풍)에 걸리고, 할 일이라고는 한 개도 없을 때, 그 때 하라는 것이다. 이런 헛깨비 잡이 놀이는 이 애늬은이가 하게 내버려 두고, 예쁜 젊은이들은 미래의 내일의 희망과 꿈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는 일 따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을 현재를 지금을 미래에 속하는 것으로 삼아야 하고, 느끼고, 미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도 오늘과 같아지는 것이고, 미래는 없는 오늘날 계속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다음에 저 쪽으로 건너가서, 하늘 할배에게 드럽게 혼난다. 아까운 시간만을 낭비하고 돌아 왔다고…. 그러니, 헛깨비 잡이 놀이는 이 애늬은이가 재미있게 놀도록 내버려 두고, 예쁜 젊은이들은 미래의 희망과 꿈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삼천포다. 자꾸 만지 걸지 마라. 졸립다.

그렇다고, 이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과 좋고 예쁜 기억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강씨주로 지내게 만들었던, 그야말로 추억을 만들었던, 그런 희로애락이 함께 했던, 나에게 주었던 사람들인 것이다. 어찌 보면,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하여도,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다. 실업계를 나와서 2급 기능사 자격증이 있었고, 포항제철에 근무하고 있어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런 것을 무시하고, 군에 입대를 하면서, 만들어진 나만의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후회를 하냐고? 노 네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은 단 한번도 없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만약이지만, 아마, 어린 나이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저, 이제는 정년퇴직을 했겠지만, 남는 거시라고는 잘나빠진 집 한채와 시집 장가를 가서, 따로 살고 있는 예쁜이들 뿐이 없을 것이고, 그저 밀려오는 허무와 무상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자판이나 두들기면서,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서로 다른 길이기 때문이다. 길이 다르면, 서로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고, 방랑 생활을 잠시 해야겠다.

예쁜 젊은이 파팅!

그래서 그냥 간다 1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희로애락 이라고 한다. 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기쁨 화냄(노함) 사랑 즐거움 고통 슬픔 괴로움 후회... 참으로 많은 것들이 찾아 왔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 간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찾아 가는 것이다. 나를 찾아 오는 것과 내가 찾아 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찾아 가는 것은 주체이고, 방문을 받는 것은 객체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방문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육체적 심리적으로 아무리 힘이 드는 상황이나, 일이라도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이라도, 내가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애늬은이가 편마비(중풍)라는 불청객의 방문을 받은 지, 일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잠깐 생각한 것이 편마비라는 불청객이 주체인가, 내가 주체인가, 주체는 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편마비에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 왜냐하면, 편마비를 일으킨 장본인인 뇌는 얼른 편마비를 일으키고는 정상으로 돌아와 모른 척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마비에 걸린 손과 발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재활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재활운동 방법과 순서를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 갓난 아기들에게서 힌트를 얻었다. 갓난 아기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젖병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젖병이 있는 곳으로 팔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신체의 중심인 심장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것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은 것이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편마비(중풍) 극복기'를 참고로 하길 바란다. 약간 삼천포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똥덩 하나도 빠짐 없이, 다 내게로 돌아 온다. 그래야, 그렇지 않아도 씨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덜 혼잡스럽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애늬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소음 공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음 공해를 만들어 내면, 배시시 웃고 마는 것이다. 괜한 말꼬리 잡기 놀이를 하면, 인천 앞바다에 떠 있던 배가 태백산맥을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배를 통해 바다에 띄워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냥, 인천 앞바다에 묶어 두고 있는 것이다. 음악 소리라면 듣는 즐거움이라도 있지,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잘 낫다고, 주절거리는 인간들을 보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귀라도 조금 덜 오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귀를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삼천포다.

모든 것의 주체는 나다. 괴로움 즐거움 슬픔 기쁨 예쁨 미움 그리움... 이런 모든 감정들을 느끼고, 감정에 빠지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대왕님이 어느 날, 싱글벙글 거리며 길을 걸어가는 예쁜 젊은이를 만났다. 그 예쁜 젊은이가 항상 웃는 얼굴이라서, 대왕님이 물어 봤다. 젊은이는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항상 웃는 얼굴인가? 그러자, 그 젊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대왕님은 이 나라의 주인이라서, 여러 가지 수 많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노심초사 힘이 드시겠지만,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라서, 내가 즐겁고 기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즐겁고 기쁜 것이랍니다. 그래서, 좋아서 웃는 것입니다.하고 대답을 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제각기 자기 자신의 주인인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 주인에게 속하는 모든 것들, 모든 하인들이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웃으며 살다가, 저 쪽으로 건너 가면 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나는 주체이기 주인이기 때문이다.

예쁜 젊은이 파딩!

## 그림자 놀이 재밌다

손바닥을 겹쳐서 두 귀가 쫄쫄한 토끼를 만든다. 손가락을 움직이자. 두 귀를 쫄쫄쫄쫄 한다. 강아지를 만든다. 이빨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상관 없다. 손가락을 벌리자, 이빨 없는 조동이가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멍멍 멍멍 짖는다. 옛날 이 애늬은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겨울 방학 때,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 겨울 밤에 놀거리가 없어서 동네 또래 아이들하고, 그림자 밧기 놀이를 했다. 그 때는 텔레비전은 물론 라디오도 없어서, 요즘의 케이블 방송 같은 라디오 방송이 스피커를 타고, 그것도 저녁 시간 때에 잠깐씩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방송은 어른들 차지였었다. 송출되는 방송 역시 농촌 어르신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었으니, 철부지 초등학생들에게는 재미 없는 그런 것들 이었다. 웬 방송 타령이냐고? 이 애늬은이는 모든 것이 모자라는 궁핍의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의식주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던 시절 이어서, 의식주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들 이었다. 그런 궁핍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근검절약? 웬 땀칠이가 지나가다 하품하는 소리? 이 애늬은이 학교 다닐 때는 교복이 학교에 갈 때 입는 외에 외출 할 곳도 별로 없었지만, 외출할 때도 입는 외출복 이었던 것이다. 거기다 교복 상의 목 주변에는 때를 타지 말라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카라를 대어서 입었다. 왜냐하면, 교복도 단벌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을 입어야 하고, 일요일에나 빨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품을 잡는 아이들은 군복을 까맣게 물들여서 입고 다니기도 했다. 그게 또 다른 나만의 멋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나팔바지, 줄바지, 뺨바지, 일자바지.... 온갖 재물을 부려서 입고 다니기도 했던 것이다. 웬 잔소리가 이렇게 심하냐고? 이 애늬은이 마음이지, 오랜만에 바지 타령을 하니, 재미가 있어서, 짹사랑 하던 영순이도 보고 싶고.... 주책이다.

요즘 아이들이나 예쁜 젊은이들은 넘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너무 넘치는 사회 속에서 묻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므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무화(안개처럼 사라지게)가 되어 버리고, 그 자리를 상대 가치가 자리를 잡게 되면, 절대 가치는 없어지고, 상대 가치만 남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대 가치는 마치 그림자 놀이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예쁜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본질의 문제는 복잡하고, 골 때리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을 봤다고 하는 것도, 대부분 문고판이나 만화책이 대부분인 것이다. 세상에나 네상에나, 원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천 쪽이 넘는다. 그런 분량의 책을 두께는 십분지 일 정도, 크기도 절반만하게 만들어 놓은 문고판을 읽고서,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읽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글자를 읽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삼국지도 마찬가지다. 월탄 박종화 할배의 삼국지에는 인용한 한시만 해도, 50여개 정도 되는데(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남), 그런 시를 적어 놓은 책은 하나도 못 봤다.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예쁜 청춘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예쁜 청춘들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예쁜이들인 것이다. 쉬운 것은 없다. 어렵다. 그래서, 예쁜 청춘들은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나는 모른다. 그러나 징조는 보인다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앞 날,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아니 전혀 모르고 있다. 점쟁이나 사주 팔자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한 사람이나, 관상학을 통달한 도사님들이나 찌غم 아주 찌غم, 그것도 극히 일부분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황소 뒷 걸음질에 생쥐가 꼬리만 살짝 밟히듯이..., 겨우 단편적인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세히 찬찬히 세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주 찌غم은 앞일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변화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변화의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날까지 여름이고, 그 다음날부터 가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굳이 나누자면, 각 계절 사이에는 간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중간에 여름과 가을이 함께하는 간절기가 있다는 것이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들도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엄마아빠 가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홀로 서기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변화가 육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를 극심하게 겪는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변화는 어린아이라는 공통분모에서 각자의 특징을 갖는 성체로 변한다는 것이고, 심리적인 변화는 가족이라는 동지에서 떠나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써 존립하기 위한 자기 자신 찾기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확립하기를 보내고 나면, 그것이, 거의 끝까지 가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변곡점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그것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또 다른 간절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정년 퇴직 후에 찾아오는 또 다른 간절기인 것이다. 평균 수명이 90에 가까워지면서, 신다섯이 정년퇴직이므로, 35년이라는 간절기가 생겨버린 것이다. 간절기가 생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이래로, 이러한 간절기가 처음 등장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애늬은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머니 할아버지 환갑 잔치가 있었다. 그 때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물자도 부족하던 시절이라, 형님들이 온갖 잔치에 쓰일 물건들을 이고 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돼지며 닭들을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애늬은이가 원하고도 다섯이지만, 경로당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골방에서 이렇게 자판이나 두들겨대고 있는 것이다. 잠깐 얘기하자면, 할마시(엄마)는 한 세기를 거의 다 채우고 있고, 큰 형님은 철순을 넘긴지 한참인데, 유일한 낙이라고는 텔레비전 밖에는 없다. 간혹 보름에 한번 정도 낚시를 다니시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쁜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써먹고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다음에 노년에, 인생 황혼기에 할 것을 꼭 만들어 놓으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의료기술의 발달은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 예쁜 젊은이들도 지루하고, 고독한 노년이 필히 찾아올 것이다. 그것은 흐름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 될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 그러니, 즐길 준비를 미리 한번쯤 생각해 두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지나가는 버스 승객 숫자나 세고 있어야 할 것이다.

준비하는 자는 황혼이 아름답겠지만, 에이 설마하는 자에게는 설마에게 잡아 먹힐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주변(인)을 천천히 쳐다봐라 1

옛말에 초록은 동색이라고 말한다. 끼리끼리 뭉쳐서 논다는 것이다.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도 끼리끼리 모여서 놀고 있다. 우주라고 예외는 아니다. 무슨무슨 성운이니, 성단이니 하는 것들도, 다 끼리끼리 모여서 놀고 있는 것이다. 제 각각 특색을 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끼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이다. 어느 책에서 보니, 당구공을 빨간 것, 하얀 것으로 골라서, 무작위로 굴려 보아도, 끼리끼리 모인다고 한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을 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인들이란, 나하고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가 아닌, 친구들을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나와 친하면, 친할수록, 나와 비슷하거나 닮은 점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구란 인위적인 친인척이나 관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의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가끔씩은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는 이기심이 먼저인 지극히 인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얘기하는 불알 친구도 배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만들어진 색깔을 갖기 이전에 성립된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내가 뚜렷한 색깔을 만들고 난 후에 만들어진 친구들을 살펴봐라.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서 자신의 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음 같은 평가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면, 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쉬우면서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것이다.

아마도 이런 끼리끼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경계를 하거나, 견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모르는 강아지 두 마리를 한 우리에 넣어 놓으면, 서로 경계와 견제를 하며, 탐색을 한다. 그 다음엔 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우열의 순서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순서가 정해지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사람들이라고 별다를 것은 없다. 두 사람이 초면으로 만나면, 공통점을 찾는다. 지역 연고 학교 집... 그래서, 공통점을 찾으면, 경계와 견제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다. 하다 못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가져다가 공통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연결 끈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서열을 정하는 것이다. 제일 쉬운 서열 정하기가 나이 순인 것이다.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면, 그 다음엔 견제와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는 것이다. 삼천포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 속에 내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을 찬찬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들 속에 나의 일부분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옹하라는 점쟁이를 찾아가지도 마라. 아주 가까운 곳,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정답인 것이다. 그 정답을 찾으려면, 내가 먼저 자신을 객관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주관화된 시선으로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고? 바보! 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걸려면, 내 자신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내 장점을 더 발전 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행(GO)’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쁜이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행동은 뭇일까? 기차(그것도 옛날 화통을 삶아 먹은 ‘증기 기차’)가 ‘서울 역’ 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가는 배가 ‘부산항’ 을 출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통점은 그들은 시작하면서 똑 같은 표현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정의한 ‘울음 소리’ 라는 것이다. 왜 그 많은 소리 중에 ‘울음소리’ 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울음소리’ 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에게 가서 물어 봤더니, ‘집에서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날 새벽에 죽었는데, 마침 배가 항구를 떠나면서 ‘부우우우웅’ 하는 기적 소리를 내길래, 그냥 마음도 울적하고 그래서 ‘울음소리’ 라고 지었다’ 는 것이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것은 똑똑하고 귀여운 ‘예쁜이’ 들이 ‘우주 서버’ 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나중에 이 할배에게 깔켜 주렴….

그렇다. 네가 엄마의 따스하고, 포근한 마냥 그대로 있고 싶은, 가슴과 마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처음 한 것이란? 가쁜 숨을 모아쉬며, ‘으앵’ 하고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자. 아기들은 숨을 쉬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일까? 울음을 터뜨리며 숨을 쉬는 것일까? 아니면 울음과 숨쉬기를 같이 하는 것일까? 이것도 그들이 연구해서 답을 알아내거든, 할배에게 멜 보내줘라! 똑똑한 이쁜 것들아, 사랑한다.

이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손주새끼들’ 인성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할배가 제정신이 아닐거야? 확실히 ‘나의 사랑하는 예쁜 손주새끼들아’ 이 할배가 유난히나 헛소리가 많고 길어지는 것은 전혀 엉뚱한데 원인이 있단다. 아 글썽! 옆에 있는 할배가 새벽 세시반부터 ‘부시럭 부시럭’, ‘사그락 사그락’, ‘스르륵 스르륵’, ‘달그락 달그락’ 거 있잖니, 어둔 밤중에 불도 켜지 않고 ‘도둑님’ 께서 조심조심 훑시라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주인)들이 깰까봐 아주 극도로 조심하지만, 부딪치거나, 설합장의 무진동 무소음 바퀴, 굴러가는 소리도, 천둥소리로 울리는 ‘자연 발생적 필연의 물리현상’ 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민감한 ‘새벽 소음 듣기’ 의 달인은 ‘천둥소리’ 를 듣고 ‘벌떡’ 깨지만, 오늘도 소리 내고 찾아오는 ‘체념’ 에 쓰른 미소를 짓고 만다.

그렇다고, 또 삼천포고 이번엔 제법 길다. 잘하면 그냥 삼천포로 가겠다. 그냥 가 버려라, 엠벙할 늑다리 다리털 귀신아!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말하기 위해서도, 생각하기 위해서도, 고민하기 위해서도,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 이다. 왜? 배고프니까? 너도 생각해 보라. 네가 무려 열달 동안(솔직히 얘기하면 열달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생물 선생님’ 께 여쭙봐라.) 가느다란 생명 줄로 공급되는 영양분(솔직히 ‘물’ 처럼 그냥 흐르는 액체다)을 먹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라. 뭐 처음에야 배가 작아서 배고픔이 없었으니 지낼만 했겠지만, 몸은 기하급수적으로 세포 분열 체적팽창 하는데, 공급되는 ‘생명수의 절대 공급량’ 은 그저 거기서 거기나, 조금 느는 정도니, 공급을 감당하는 자체가 무지무지 힘든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아가’ 들이 엄마 가슴에서 나오는가 보다, ‘배가 고파서…’, 그래서 태어 나면서 우는 것도 ‘배가 고파서…’ 라고, 지극히 증명 불가능한 가설이다 어쨌든 아기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존재감 표현’ (우는 것)이고, 다음은 먹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는 짚고 넘어 가야 한다. 애기가 하는 것이 바로 ‘움직이는 것’ 바로 ‘행(동)’ 하는 것이다. 말로 하지도, 인상을 쓰지도 않는다. 도데체 뭘 알아야 하지, 이제 엄마 가슴에서 뒤적거리며 놀기만 하다가(크다가) 이세상에 나왔으니, 배운게 있나, 아는게 있나, 느끼는게 있나, 만져본게 있나? 도데체 뭐? 그야 말로 맹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바닷물이 원래 짠게 아니다. 맹물인데 소금을 ‘찌꺼’ 풀어서 그래서 ‘짭짤해’ 진 것이다. 그럼 그 소금은 어디서 났는데? 예쁜 것들! 그거는 ‘하늘’ 에 물어봐라. 지금 제일 한가한 할배 중에 한 분이 ‘하늘’ 이거든, 그래서 아주 친절하고, 알기 쉽게, 너희들 수준으로 아주 아주 잘 얘기해 줄 거다.

우리들이 태어나서 처음 하려고 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그리고 하는 것도, 바로 ‘행’ 하는 거다. 움직이는 거다. 그것이 아기가 할일이다. 못 먹어도 고(go)다. 그게 낫다. 왜? 재밌으니까…. 움직이는 것을 ‘행’ 이라 한다. 우리말로 ‘간다’ 는 행이지만, 이 할배는 고것과는 다르게 해석해서, 행동한다는 행이고, 움직인다는 행이고, 내 의지가 포함된 적극적인 모든 ‘의사 표현’ 을 ‘행’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너에게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야 이치에 맞는다. 그래야 세상이 공평한 ‘등가성의 원리’ 가 성립 된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는 속담이 있다. 무지무지하게 이득이다. 그런 장사를 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실상은 ‘본전’ 이다. 주고 받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물가도 오르고, 화폐가치는 떨어진다. 따라서 본전이다.(웃겨...) 어쨌든 모든 너에게서 나온 것은 그대로 또는 이자에 겹이자까지 쳐서 너에게로 돌아 온다. 특히 나쁜 것일수록...

아무도 모른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딱 둘만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 ‘너하고 ‘하늘’ ’ 이다. 그러니 비밀은 없다. 워낙 하늘은 담아 두거나, 숨길 줄 모른다. 오죽하면, 조금만 무거워도 ‘비를 뿌려대는’ 참을성이라고는 눈곱 만큼도 없는게 ‘하늘’ 이다. 고따구 하늘이니, 네가 아무리 잘 숨겨놔도, 온 세상이 금방 알아버린다. 그런데 그런 ‘하늘’ 도 한 가지 모르는게 있으니, 바로 우리들이 ‘행’ 하는 것은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늘’ 은 눈이 없다. 그래서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너는 ‘눈’ 이 있어서, 볼 수 있다. 좋고, 바른 것을 보라는 눈이다. 그리고 움직이라고 있는 손 발이다. 좋은 일에 쓰고, 좋은 일을 하라는, 생각은 머리가 하게 내버려 뒀다. 손발을 열심히 쉬지 말고 움직여라. 그것이 네가 할 일 이다. 아무리 잘 드는 ‘칼’ 이라도 좋은 일에 쓰면, 모든이에게 이익을 주지만, 바람직하지 않게 쓰면, 무기 그것도 너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살상 무기’ 가 된다. 그러므로 바르고 옳은 일에 쓰도록 해라. ‘행’ 하는게 네가 할 일 이다. 바르고, 옳은 일에 너의 손발을 쓰도록 해라.

예쁜 젊은이 파팅!

나도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소위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높여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절대고 있다. 지나가는 땡칠이는 듣기 싫다고, 귀를 내려서, 안들리는 척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족속들이, 심심하다고 전쟁놀이나 하고, 괜히 한 밤중에 잘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두들겨 패고, 탐욕과 욕심에 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정말 한심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만은 아니다. 밥을 굶고 있는, 잠시 쉬어가는 도전자(노숙자)에게 따뜻한 국물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전하기도 하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 예쁜이에게 손가락 하나를 내어주기도 하고,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지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할매의 짐을 덜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지는 이 애늬은이에게 묻지를 마라.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저 이 애늬은이가 알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답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긍정의 눈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을 볼 것이고, 부정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부정을 볼 것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다. 옛날 옛적에 무학대사 할배가 말씀 하셨듯이, 꿀꿀이 눈에는 꿀꿀이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으니까. 아주 지극히 현명한 말씀이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내 마음이 시키는 것이지, 내 눈이 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내 눈은 마음이 없어서, 생각하거나 판단할 줄은 모른다. 그저 보이는 그대로, 머리와 가슴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상을 전달 받은 머리와 가슴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치와 비교 분석을 해서.... 그래서, 예쁜 갓난 아기들은 누구나 눈이 마주치면, 생글생글 웃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치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멍멍이 야옹이와 눈이 마주쳐도, 생글생글 웃는 것이다. 갓난 아기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예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생글생글 웃는 것이다. 뻘----- 하고 우는 것을 먼저 배운다고, 아니다. 뻘----- 하고 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 가슴에서 나오자마자, 간호원 언니가 볼기를 사정 없이 때려서, 서러워서 억울해서 뻘----- 하고 우는 것이다. 그것은 배워서 우는 것이 아니다. 삼천포다.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생겨서 탤런트 배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 나게 좋은 머리를 갖고 있어서 대학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뭐든지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늘 나라에 대학이 있고, 명문 유치원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다. 하늘에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늘 할배가 너무 바빠서, 괜한 것들을 만들어서, 더 바쁘게 만들 이유가 한 개도 없기 때문이다. 그저, 하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은 필요 없는 존재를 만들어서, 장난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의 피조물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몽땅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다. 풀 한 포기, 미꾸라지 한 마리, 돌멩이 하나까지.... 몽땅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다. 그런 것을 모르는, 일부 바보 멍충이들이 하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탑을 쌓고, 방패연을 만들어 타고 까불다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이다. 우리들은 잘나고 못남이 없는 것이다. 하늘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의 잣대가 아닌, 하늘의 잣대로, 세상 만물을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들은 매일매일时时刻刻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되었든 최선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때로는 이득을 가져오기도 하고, 손해를 가져 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저 빙글빙글 웃는 것이고, 손해가 나면, 심통이 나고, 화 풀이 대상을 찾아서, 씹씹거리는 것이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그 결정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득이 되면 얼마나 되는지, 손해는 얼마인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가 나더라도 내면의 가치가 더 크게 난다면,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 내 주변을 살피는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까지 가능한 내 머리로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고, 보다 그 이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나, 그 결정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즉, 미래를 탐색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망할 것을 미리 알면서, 도전하고 시도하는 경우는 없다. 모든 장사든 사업이든 음식점이든, 모든 업주들 시도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접근방식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 내가 그 결정에 얼마만큼의 유연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가를 따져 본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변화라는 속성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변화가 무서운 것은, 지금도 내일이면, 과거로 만든다는 것이다. 변화가 없이, 그대로 어제의 것이 오늘의 것이 되고, 오늘의 것이 내일의 것이 된다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과학만 문명만 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 분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외국과의 자유로운 소통은 변화를 더욱 극심하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애늬은이는 지금을 혼돈 카오스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혼돈을 정리할 코스모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를 지난, 그 다음 세대쯤에는 출현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빅뱅 이후에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안정을 찾는데, 100억년이나 걸렸으니... 아이고! 모르겠다. 무식한 애늬은이가 뭘 안다고, 주절 거리기는... 그래서, 내 꼬라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 우리들은 가능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 우공할배는 가능성의 효시라고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능성의 세계에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예 사전 자체가 없는 것이다. 불가능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불가능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것이다. 불가능을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도, 자기 자신인 것이다. 그러니, 예쁜 젊은이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 나란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나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지구라는 것이 하나 이듯이, 나도 하나인 것이다. 그런 소중한 귀한 유일한 존재는 있어도, 학벌, 돈, 직업, 지위... 이런 것들로 치장한 나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와 같이 소중한 귀한 존재로 대하면 되는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래야, 세상이 공평해지는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옛날 중국에 있던 사람들은 강가에서 살았다.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였기 때문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예외 없이 먹을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강가에서 시작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하늘이 비를 골고루 균등하게 일년 내내 내려 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질 않고, 장마철에는 매일 폭우를 쏟아 붓고, 그 외의 계절에는 하늘 마음대로인 것이다. 치수, 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에 물 관리를 담당한 담당자가 치수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치수를 시작했다. 이 사람이 치수하는 방법은 무조건 막는 것이 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물은 계속해서 땅 밑에서 솟아 나오고, 막히면 채워지고 넘치는 것이 근본적인 속성 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치수에 실패했던 것이다. 그 후에 그 사람의 아들이 치수에 나섰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는 다른 치수 방법을 사용했다. 막힌 곳을 뚫어 주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물길을 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현명한 아들은 물길을 만들어서, 운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물 길을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자, 물은 공포의 대상에서, 사람들이 편리를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모든 만물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선함과 악함이다. 그렇다고, 본성이 두 가지인 것은 아니다. 마치 동전의 앞 뒷면이 있는 것과 같다. 동전은 하나인데,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삼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앞뒷면을 가지고 있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차원의 세계에서는 앞뒷면이 없다. 한가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급하면, 막으려고만 한다. 내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내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떠 넘기려고 하고, 내 과오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당연한 자기보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주 어리석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세상은 감추거나, 숨기거나, 떠 넘겨 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안정되고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엄청난 착각인 것이다. 빅뱅이라는 하늘이라는 할배가 골 프공을 때린 것이 100억년 전 이었고, 앞으로 100억년 후에는 해님이 먹보 돼지가 되어, 이 지구를 씹지도 않고, 꿀떡 삼켜 버린단다. 그렇다고 이 애늬은이는 걱정을 한 개도 하지 않는다. 이 애늬은이도 저 쪽으로 건너갈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도 않지만, 우리의 현명한 이 뿐이 후손들이 해님이 먹보 돼지가 되기 전에 또 다른 우주에 있는 새로운 지구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천포다.

막으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막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버티기보다는, 그저 흐르게 놔두는 것이 훨씬 좋고 바람직한 것이다. 길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은, 짧은 순간에 잠시, 세상구경을 하러 나와서, 고평구 지나가버린 헛깨비와 씨름이나 하는 바보명청이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대신에 아지 오지 않은 내일을 미래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예쁜 것이다. 그러니, 내일의 희망과 꿈을 붙잡고 씨름을 해라. 그것이 훨씬 이득인 것이다. 소통되게 그냥 두어라. 오히려 잘 흐르라고, 걸리적 거리는 것들을 치워줘라. 그게 현명한 이쁜이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비난 받고, 욕 좀 먹는다고, 저 쪽으로 건너갈 때, 보탬이 되거나, 손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고평구 것들을 생각하는 나만 바보명청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나간 헛깨비와 상대조차 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나를 위해서...

예쁜 젊은이 파팅!

## 만족할 줄 알아라!

만족과 불만족을 나누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크기에 따라서 만족을 만들기도 하고 불만족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 예외적인 존재들이 있다. 스쿠루지 할배나 놀부 할배 같은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만족 자체를 모른다. 그래서, 끝임 없이 물질적 욕구가 생겨서, 소유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 때문에 달을 해를 별을 주어도, 2% 모자라는 것이다. 저 쪽으로 건너갈 때는 빈 손인데도...  $\pi\pi\pi\pi$  오죽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을까.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다. 버리기를 하는 것은, 다 몽땅 버리고 나면, 나 마저도 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다. 새롭게 보이는 것은 예쁜 것이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눈만 마주치면 생글생글 웃는 것이다. 눈이 마주치면, 새롭고 재미있는 존재로 보이기 때문인 것이다. 대상은 아무 상관 없다. 엄마 아빠 삼촌 명명이 야옹이 금붕어 메추리... 살아 있는 것,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것이면, 다 예쁜 것이다. 아가들 마음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도통한 도사님보다 한수 위의 도도사인 것이다. 성선설? 성악설? 아니 세상천지에 나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예쁜이들에게 개 풀 뜯어 먹는 소린지...  $\pi\pi\pi\pi$

내가 만족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워낙 무엇이든지 만들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것에 스스로를 가두고 산다는 것이다. 그것뿐이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거기다가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등을 만들고, 꼴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 만들게 없으니, 명명이 예쁨 대회라는 것도 만들고, 무시기무시기 증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벽에 걸어 놓고, 좋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명명이는 관심이 모기 눈썹 만큼도 없다는 것이다. 삼천포다.

만족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만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100% 내가 하는 것이다. 2% 부족해도, 내 것이니 소중하고 귀하게 받아들이지, 그 모자라는 2%를 채우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며, 싸움박질이나 하고, 미워하고, 눈을 흘기면서, 전쟁터에서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도 한 판의 인생이다. 어떤 존재도 선택을 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은 일생에서 많은 선택을 한다. 그 수많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선택의 본질을 따져보면, 단 한가지로 말할 수 있다. 모든 선택은 내가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나에게 강요된 선택이라도, 그것은 선택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가끔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을 핑계를 좇아다가 주절대는 바보멍청이들이 있다. 진짜 바보멍청이들이다. 이렇게 변명이나 핑계를 좇아다가 갖다 붙이기 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이 보다 멋쟁이인 것이다. 소크라테스 할배의 발가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 소크라테스 할배를 흉내 내서, 변명을 늘어 놓아봤자, 지나가던 땡칠이도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린다. 그러니, 만족을 하며 살아라, 2% 부족해도, 그것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니, 내가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때때로 부족한 것이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자체가 2% 부족한 것이니, 모자라는 2%를 즐기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늘의 배려인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자기 자신을 세워라(소나무 줄기를 보라) 1

산 등성이에 하늘 구름을 배경으로 늙은 소나무(노송)이 위엄을 뽐내고 있다. 그 노송도 하나의 여린 씨앗에서 나와서, 수십년의 세월을 짙 짙 벌어진 껍질이라는 기둥을 훈장 삼아서 산등성이에 서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껍질들이 흉한 것이 아니라, 노송을 더욱 위엄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예쁘고 위엄 있게 보이는 것이다. 무거운 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할배의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다.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미소 짓는 얼굴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얼굴 같아 보인다.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할배의 주름진 얼굴과 노송의 줄기 껍질이 자랑스럽고 위엄이 있어 보이는 것은, 지나온 세월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다. 그렇다고, 피곤하거나 고단한 기색도 없이 노송은 길 잃은 철새에게 가지를 내어 주고, 할배는 시원한 물 한잔에 갈증을 풀고 있다. 그 모습이 한 없이 여유로워 보이는 것은, 마치 내가 신선세계에 잠시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예쁜 젊은이들은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예쁜 젊은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푸느라, 삼매경에 빠져 있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예쁜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이 수립해 놓은 목표를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젊은 예쁜이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저, 오늘도 내일의 꿈과 희망을 위한 도전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도 남김 없이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예쁜 젊은이들은 오늘을 어제에 과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미래의 꿈과 희망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쁜 젊은이인 것이다. 그저, 오늘날을 사는 젊은이는 그냥 젊은이일 뿐이지, 예쁜 젊은이는 아닌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이 나중에 정년퇴직을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때가 되면,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거나 안달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내일에 뜨는 태양은 오늘에 떠있는 태양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것을 내일로 미루거나, 내일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오늘의 것을 내일로 가져가면, 내일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연장선상에 있는 오늘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이렇게 되면, 인생이 삶이 내일은 미래는 없는, 오늘날 현재만 계속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저 쪽으로 넘어가면, 하늘 할배에게 드럽게 혼나고, 손들고 별까지 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쁜 젊은이는 오늘을 내일에 포함시켜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이 다음에 노송 같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쁜 젊은이인 것이다.

가끔 주변을 살펴보면, 장래의 가능성이나, 장미빛 전망, 기업의 탄탄성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따지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 지나가는 땡칠이가 배시시 웃으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 것들은 없다. 그런 것들은 변화의 근본 본질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소치인 것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는 자연의 근본적인 속성이고 기본이기 때문이다. 변화가 없는 것들은 죽은 것이고, 죽은 것들은 금방 흩어져서 자기의 근본 고향인 허공으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들이 지금 눈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변화의 과정 중에서, 생겨나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들 눈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다. 전기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는 라디오도 냉장고도 컴퓨터도 없었다. 이 땅에 전기가 들어온 것도 채 이백년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애늬은이 어린 시절에 할머니 집에 가면, 석유로 불을 밝히는 호롱불로 밤을 밝혔다. 그것도 초저녁에 잠깐만, 그런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지금은 밤 11시를 훌쩍 넘기고, 전기 스탠드 불 아래서, 노래를 들으며,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 애늬은이는 이런 미래가 있다는 것도 짐작도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큰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눈 앞에 보이는 현재와 과거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무서운 것은, 잘못하면 헛깨비와 사랑에 빠져 버려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헛깨비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쁜 젊은이들은 산 등성이 나무처럼 자신을 찾고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 다음에 철새들에게 가지를 내어줄 수 있는 노송이 되는 것이다. 아니면, 잡풀이 되어, 지나가는 염소가 뜯어먹는 존재가 되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 상대방을 이해해라 1

역지사지라고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2% 부족하다. 그러나, 2%쯤 부족해도 괜찮다. 나도 나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절반쯤 50%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 50%냐고? 바보! 그러면 나는 나를 다 100%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죽 했으면, 소크라테스 할배가 ‘내 꼬라지를 알아라’ 하고 말씀 하셨을까. 물론 그 의미는 짝뿔 틀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우리를 자신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이드 할배의 정신분석입문에 따르면, 우리들은 몽땅 다,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의식 세계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의 세계라고 가정한다면, 무의식의 세계는 내가 모르는 알 수도 없는 세계인 것이다. 만약에 두 세계의 영역이 같다면, 우리들은 겨우 50%만 알고 있다는 것이다. 길 가운데서 예쁜이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길 가운데로, 저 쪽에서 뽕뽕 차가 달려오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예쁜이 엄마는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것이다. 얼른 예쁜이를 안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다. 생각도 하지 않는다. 생각할 그 짧은 순간에 예쁜이 옆에 와서, 예쁜이를 안전하게 꼭 품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우리나라 유학생이 달려오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예쁘게 저 쪽으로 건너 갔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다. 의식의 세계는 눈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행동에 옮길지를 결정하지만, 무의식의 세계는 중간 단계를 생략한 것이다. 위험이 감지하는 순간에 벌써 행동에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삼천포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충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고,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무촌 사이인 부부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나만을 내세우기 때문인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인 크산드라(맞는지 모르겠다. 혹시 아니더라도…)가 무지무지 심한 잔소리를 하고, 물을 바가지로 쏟아 부어도, 소크라테스 할배가 그저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것이 정상’ 이라고 받아들이면, 부부 사이에 전쟁은 없는 것이다. 아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이런 행동에 맞대응을 하게 되면, 전쟁은 당연한 수순에 따르는 필연인 것이다.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져서, 상대를 멍멍이로 만들고, 거기다 덧붙여 엠병까지 걸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엠병을 앓고 있는 멍멍이 배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부부간에 전쟁을 하더라도, 가슴으로 하지 말고, 머리로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두 돌맹이가 부딪쳐 봐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불꽃만 순식간에 생겼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은 소크라테스 할배에게 배우면 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화가 나고, 분해서 참을 수 없을 때는, 마음은 잡재워 놓고,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좋은 점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인 것이다. 긍정의 힘은 얼마나 위대한지,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도, 내가 말하는 그대로 긍정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니, 화가 나고, 분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 갔어도, 담벼락이나 종이에 장점을 적은 종이를 붙여 놓고, 그것은 큰 소리로 읽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화도 가라앉고 분도 풀리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게 풀려고 하지 마라. 어려운 것일수록 쉽게 풀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턱대고 이유 없이 상대방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누가 대신 해 줄 것인가? (감힌 것을 풀고 나와라) 1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가두고 살고 있는 것이다. 성직자와 같이 마음 속에 신앙과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분들이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할배 등을 빼고는, 라덴 할배처럼 빼딱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나,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을 가두고 있는 것은 많다. 관습 습관 도덕 예의 법률.... 이런 것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인 명분은 있다. 내가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듯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약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여덟개의 팔조금법이던 되었는데, 지금은 법만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하니, 인간이란 동물이 얼마나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세상만물 중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리에 스스로를 가두는 종은 인간이 유일한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자 맹자 등 동서양을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성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끔은 맨발로 얼음 위를 뒹뒹뒹거리며, 걸어가는 펭귄이 부럽고, 튼실한 뱀가죽으로 멋지게 썰매를 타는 북극곰이 부러운 것이다. 그 예쁜이들은 법률 같은 것을 만들지 않고도, 수 만년을 살아온 것이다. 괜히 길을 잘못 들어와서 삼천포로 갔다. 유턴!

우리들은 다행이게도 머리가 있어서 생각할 수 있고, 따뜻한 가슴이 있어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가끔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쇠창살로 만든 우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원래 고향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도 참! 좋은 것이다. 그렇다고, 설악산 지리산 백두산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집 뒤에 있는 뒷산이라도 가면 되는 것이다. 뒷 산도 자연의 한 부분 이니까. 동해 남해 서해 울릉도 독도 같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 공원에라도 자주 다니라는 것이다. 동해 바닷물이나, 공원에 있는 연못의 물이나, 다 똑 같은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팽팡하게 터질 듯이 부풀어 있는 풍선은 아카시아 나무의 가지 하나면, 터지는 것이다. 굳이 아카시아 가시가 아니라 민들레 꽃씨만 살짝 내려 앉아도 터지는 것이다. 그러니, 일상 생활에 갇혀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마음이 쉴 수 있는 잠시만이라도 쉴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먼 곳이 아니라도 상관 없고, 삼박 사일 이라는 긴 시간이라도 상관 없고, 멋지게 모자 쓰고 배낭 메고 등산화를 신지 않았어도 상관 없다. 그저 맨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었으면 된다. 그런 차림으로 집 뒤에 있는 뒷산을 어기적 어기적 걸어 갔다 오면 되는 것이다. 뒷 산도 히말라야 백두산과 같은 자연의 일부분이고, 나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격식을 체면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환경의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만들기 좋아하는 종만이 격식을 체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신을 가두고 살고 있는 것이다. 간혹 그냥 자연에서 자연의 일부분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온다. 그러나, 이 애늬은이는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이 외출 나간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옛날의 히피족 처럼...

예쁜 젊은이 파팅!

나누어 생각하라. 5년쯤 '긍정' , '부정' , '비워라' 1

우리들이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원래부터 긍정과 부정은 없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이 있었다. 있냐 없냐 하는 것만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들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모든 것들을 만들면서, 옳고 그름 긍정과 부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긍정과 부정을 만드는 것을 주체인 인간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절대 긍정도 절대 부정도 없는 것이다. 아주 쉬운 예로, 주방장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나, 전쟁터에서 적군과 마주친 군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긍정이다. 그러나, 한밤중에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들어간 도둑님이 재물을 내 내놓으라고, 잠자는 집 주인을 깨워서 위협하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 부정이다. 똑 같은 칼이지만, 주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애늬은이는 예쁜 젊은이들에게 긍정과 부정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아주 쉬운데, 항상 쉬운 것이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기간도 5년은 너무 길다. 한 일년이라도 괜찮다. 쉽게 3년이라고 하자. 나누는 기간은 항상 같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긍정 부정 비우는 기간은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년을 긍정만 하는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옳은 것이다. 긍정만을 하는 것이다. 경찰이 도둑님을 붙잡는 것도 옳은 것이고, 땡칠이가 내 앞을 지나가는 것도 옳은 것이고, 부부 싸움을 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세상은 온통 옳은 것뿐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꼭 만들어 붙여야 한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년을 생각하며 보내는 것이다. 다음엔 부정하는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경찰이 도둑님을 붙잡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장발장 할배는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친 것뿐이다. 장발장 할배가 호의호식을 하려고, 빵을 훔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배고픈 장발장을 만드는 사회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도둑님을 만드는 사회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사를 자연사까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년을 보내고, 다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영화관의 영화 장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저 눈 앞에 잠깐 스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데이트를 하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지만, 나는 없는 존재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는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한 가지 생각만을 하는 것이다. 이런 도라이 짓을 하고 나면, 달라진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습을 하기 전보다, 부쩍 커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보다 여유 있는 시각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판별력도 넓어지고, 긍정하는 마음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핑계 없는 무덤을 파헤쳐서, 그 핑계의 진실성까지 볼 수 있는 여유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쯤 해보라고 하는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나만 의 길을 찾아라 탐색하라 그리고 정해라 1

이 세상에 자신만의 정답을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심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이타심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점을 양 끝 점으로 연결한 연결선상의 어느 점에서 우리들 각자는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꼭 어느 지점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서커스의 외줄타기 곡예의 명인처럼 나를 둘러싼 상황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어느 한 점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애늬은이는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 스스로를 가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진정 시키는 것 외에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한 곳에 격리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외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삼천포다.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은 매우 많이 중요한 것이다. 한번뿐인 삶을 왔다 갔다 우왕좌왕 헛갈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은 하늘이 내 가슴에 심어준 선물을 찾는 것이다. 하늘은 공평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엄마 가슴에 머무르고 있을 때, 선물을 하나씩 심어주었다. 머리에 심어 주지 않고, 가슴에 심어준 이유는 몸으로 경험하고, 땀을 흘려서, 알아 내라고 가슴에 심어준 것이다. 그러니 자갈만이 가득한 머리를 굴려서, 선물 보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경험하며, 땀을 흘리고도, 배시시 웃을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이 내게 심어준 선물인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나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늘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라는 잣대로 선물을 평가하려고 한다. 돈에 눈이 멀어서... 바보멍청이다. 하늘에는 돈이라는 잣대 자체가 없는 것이다. 마치 돈을 모르는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 돈을 주면, 맛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사냥감을 익힐 때 쓰는 불쏘시개나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늘에는 돈이 없어서, 돈으로 평가되는 선물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문명화된 인간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하늘의 선물을 평가하지 말고, 몸으로 땀으로 미소로 마음으로 하늘의 선물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만이 갈 수 있고, 가야 하는 내 길인 것이다. 그 길은 앞서간 선배들이 간 길 일수도 있고, 내가 처음으로 가는, 개척해야 하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 일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은 자신과 하늘뿐이 모르는 것이다. 비록, 길이 없는 황무지 벌판이라도 두려워 하거나, 겁내지 마라. 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살면 되는 것이다. 옛날 중국의 우공 할배는 다 닳아빠진 삼 한 자루로 그 높고 웅장한 태산을 옮겼던 것이다. 우공 할배는 사전이 없어서, 불가능이란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공 할배와 나폴레옹 할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공 할배가 끝도 없는 우주라면, 나폴레옹 할배는 뒷산에 피어있는 잡풀만한 것이다. 그래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기왕 엄마 가슴을 빌어서, 세상구경을 하는 것인데, 통 크게 놀라는 것이다. 통 크게 놀라니까? 저 쪽에 있는 망령난 할배가 말하는 통조림 깡통이 아니라, 태평양 다 담아도 여유가 있는 통을 가지고 놀라는 것이다. 그래야 통이 조금 크다는 소리를 들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 긍정하는(받아들이는) 자세 1

인생사에서 긍정하는(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은,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애늬은이가 자갈만 가득 들은 대갈뺨으로 긍정하는 마음에 대해서 풀어 보려고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풀이 이므로, 재미 삼아 읽어 주길 바라며, 시작한다. 하나, 긍정하는 마음은 예쁨을 키우는 것이다. 긍정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는 눈을 가지게 해준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가는 노인네의 짐을 들어 주는 것이고, 유모차를 타고 가는 예쁜이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예쁨이 한번에 한 뼉씩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하는 마음은 행동으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쁨을 한 뼉씩 속속 키우는 것이다. 하나, 긍정하는 마음은 예쁨을 만드는 것이다. 긍정하는 마음은 세상만물이 각자 가지고 있는 예쁨을 보는 눈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비바람에 흔들흔들 가지에 매달려 있는 아직 익지 않은 푸른 모과 열매도 귀엽고, 아파트 담장을 끼고 피어 있는, 노란 장미 꽃망울도 귀엽고, 산 속 산책길 옆에 피어있는 하얀 토끼풀 꽃도 귀여운 것이고, 손주들 고사리 손을 꼭 잡고 파란색 횡단 보도를 건너가는 할배의 배시시 웃음도 미소도 귀여운 것이다. 예쁜 손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할배나 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쁨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나, 긍정하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는 열쇠인 것이다. 긍정하는 마음은 자기 보호본능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문을 닫고 채워 놓은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이다. 그래서,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긍정하는 마음인 것이다. 하나, 긍정하는 마음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다. 긍정하는 마음은 나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먼저 하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말하든 행동으로 나타내든, 그 무엇이든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긍정하는 마음은 상대가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몽땅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에 무엇이든, 누구이든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 긍정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다. 긍정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러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만약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정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하나, 긍정하는 마음은 세상사를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긍정하는 마음은 가능성의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막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하는 마음은 세상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하나, 긍정하는 마음은, 마음 속에 예쁨을 하나 키우는 것이다. 돼지 눈에는 꿀꿀이만 보인다. 마찬가지로 긍정하는 마음은 긍정만을 보는 눈을 갖게 만들고, 긍정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므로, 마음 속에 예쁨을 하나씩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하는 사람은 항상 배시시 미소 짓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 긍정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이다. 긍정하는 사람은 부정 속에서도, 긍정을 찾아내는 사람이므로, 부정을 모른다.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설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 긍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이 없다. 긍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며,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므로, 말을 보탠다는 것은 괜한 소음만 보태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말을 보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배시시 미소만 짓고 있는 것이다. 하나, 긍정하는 사람은 자신도 없애는 사람이다. 긍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존재감조차도 없애는 사람인 것이다. 하나, 긍정하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긍정과 부정이 있어서, 긍정은 받아들이고, 부정은 걸러내는 것인데, 부정이라는 걸름채가 없으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하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자기 자신을 '사랑' 하라. (자신을 스스로 높여라) 1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공주병이나 왕자병에 걸리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이지, 자기 자신을 '사랑'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애늬은이처럼 머리 속에 자갈만 잔뜩 집어 넣고는, 나는 모르는게 하나도 없는 똑똑이라고 헛소리나 주절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귀하고 소중한 왕자나 공주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왕자 공주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 줌으로써, 자신도 주위 사람들과 같이 높여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왕자나 공주는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위에서 만들어 줘야 왕자가 될 수 있고, 공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혼자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싶으면, 자기 방에서, 혼자 왕자놀이 공주놀이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 속에 있는 철창이 처진 나홀로 방에서 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왕자놀이 공주놀이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을 왕자 공주 대하듯이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왕자 공주가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왕자 공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가다가 부하 직원들을 심하게 하인이나 몸종 대하듯이 하는 상사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마치 자리에 없는 친구를 멍멍이 취급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바보멍청이를 이다. 왜냐하면, 부하직원을 하인 대하듯이 하면,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인이 되는 것을 모르고, 친구를 멍멍이 취급하면, 멍멍이 주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멍멍이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기다 더하기, 자기 자신의 마음마저도 하인을 만들고, 멍멍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마음 속에는 예쁨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예쁨은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장 옆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쁜 젊은이들은 마음을 이런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말고, 예쁜 마음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꽃밭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예쁨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 가슴에서 사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고 말이기 때문이다. 행동은 몸이 하는 것이고,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다. 행동이나 말은 구들장을 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서 거리에서 공원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장에서 하는 것이다. 내 몸이 가는 곳이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다. 남녀노소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예쁘고, 어슬렁 어슬렁 걸어가는 집 없는 고양이도 예쁘고, 아파트 담장에 노란 꽃망울을 머금고 있는 노란 장미도 귀엽고, 공원 산책 길 옆에 커다란 소나무 밑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살짝 내민 새끼 손가락만한 노란 민들레 꽃도 귀엽고, 수족관에서 동그란 입술을 뽀뽀뽀뽀 거리는 잉어도 예쁜 것이다. 하물며, 공원 산책로 옆에 자리잡고 있는 바위들도 내가 걸터 앉을 수 있게 만들어 줘서 예쁜 것이다. 이 세상은 이처럼 무지무지하게 많은 예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예쁨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예쁨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마음 속에 이기심을 키우고, 탐심과 탐욕을 키우기 때문인 것이다. 마음 속에 요놈들을 키우면,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입이 굳어져서, 예쁨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돈 명예 영화 물질과 같은 인간들이 만든 것들 뿐인 것이다. 그러니, 예쁜 젊은이들은 마음 속에 예쁨을 하나 키우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그게 훨씬 이득이다. 저 쪽으로 건너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선택은 자유...

예쁜 젊은이 파팅!

## 자기 자신은 없다 1

소크라테스 할배가 ‘네 꼬라지를 알라’ 고 하셔서, 내 꼬라지를 한번 찾아봤다. 분명히 나는 있다. 이름도 있고, 예쁜이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엄마도 있다. 분명히 나는 있기는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 ‘나’ 인지는 모르겠다. 분명히 예쁜이 아빠는 엄마는 있고, 형들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친척들도 많이 있다.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공이 할배처럼 바위를 깨고 나온 것도 아니니,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은 존재로써, 있기는 있는 것이다. 누구 누구의 누구는 있는데, 그럼 나라는 존재는 독립된 고유한 주체로써는 존재하지 않는, 누구의 나라는 객체로써만이 존재하는 헛깨비인 것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자갈들이 부딪치며 내는 씨끄러운 소리에 귀가 아프다고 아우성이다. 그래서, 잔머리 굴리기도 그만둔다. 그리고, 자갈만 가득 들어있는 머리를 한대 쥐어박자, 머리로 손도 아프다고, 눈물이 찔끔 나온다.

우리들은 주체로써 존재하는가?, 아니면, 객체로써 존재하는가? 답을 모르겠다. 주체론자들(저 북쪽에 있는 망령난 늑은이만 빼고)은 분명히 우리들은 각자가 고유한 주체를 지닌 존재로써, 주체가 우선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객체론자들은 우리가 존재의식을 가질 수 있는 상호작용에 의해서만이,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존재가치를 갖게 만들어주는 객체가 우선 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로빈슨 크로스 할배 얘기를 한다. 만약에 로빈슨 할배가 무인도에서 혼자서 살다가 저 쪽으로 건너 갔다면, 로빈슨 할배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는 존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로빈슨 할배가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로빈슨 이라는 주체가 아니라, 로빈슨이라는 객체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부질 없는 물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것이다. 괜히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자갈이 깨져봐야, 깨지면서 생기는 불통 때문에, 머리만 지끈지끈 두통약이나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면 어떡하고, 객체면 어떡한가, 주체가 필요할 땐, 그저 주체가 되면 되는 것이고, 객체가 필요할 땐, 객체가 되면 되는 것이다. 도토리 키는 재서 뒤에 써먹게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가릴 것 없이, 몽땅 갈아서 도토리 묵이나 만들어 먹으면 되는 것이다. 아구! 저녁 먹은 것이 쑥 내려간다. 그래도 제목은 써 놔으니, 마무리는 지어야 한다. 삼천포다.

이 애늑은이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나라는 주체보다는 우리들이라는 집단 속에서 존재하는 객체가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라는 개체가 없다고, 그 조직이나 집단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개인의 가치보다는 여러 개성을 가진 개체들이 모여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조직이나 집단의 일부분으로서의 개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비상시에 전시를 대비한 조직에서는 조직의 목표가 최우선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체로써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시도 아닌데, 군대를 이끌고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에이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고, 삼천포다.

자기 자신이 없다고 착각하지 말고, 자신을 찾아 보라.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이십년 삼십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라. 왜냐하면, 미래는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will make’ 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의지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나가야,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될 것이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예쁜 젊은이 파팅!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1(입 밖에 내지마라) □ 나를 비난한 '상대방' 도 선생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런 얘기의 99.9%는 얘기의 대상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홍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그 대상이 아닌지, 내가 고따구 얘기들을 뱉어낼 수 있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이 보이고, 멍멍이 눈에는 멍멍이만 보이는 것이다. 내가 비난하고 홍보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것이다. 예비 성직자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은 성직에 대한 대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다. 그래야, 올바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만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도 경배의 대상으로 마음이 가득하도록 마음 속을 비우는 공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막 세상구경을 나온 갓난 아기의 마음처럼,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 신을 대상을 심고 키우는 것이다. 그분들은 마음 속에 경배의 대상 하나만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경배 대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다. 대신 하늘이 이 땅에 내려 보낼 때, 가슴 속에 품어준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이며 귀 입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예쁜 것이다. 마음 속에 가득 차있는 것들이 넘쳐나서, 이런 부분들까지 예쁘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잣대로 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늘의 잣대는 사랑 예쁨 자비... 이러한 각각의 잣대로 눈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하늘의 잣대를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 것, 네 것이 없고,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것이다. 그저 잣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예쁨 자비... 이런 것들 뿐이 없고, 이것도 쥔 수도 없고, 재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을 재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삼차원이라면, 저 세상은 사차원의 세상인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다. 내가 스켓치 북에 나를 그려 놓으면, 나는 이차원의 세상에 있는 것이다. 이차원의 세상에는 공간도 시간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애늬은이가 아직 저 세상에 갔다 오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다. 그건 이 다음에 이 애늬은이가, 가보고 나서, 그곳에서 메일을 보내 줄 것이니, 그 때까지 그저 오늘을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다. 삼천포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홍보지 마라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기에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파구 것들을 만들 시간이 있으면, 구들장이나 짬뽕이나 낫잠이나 한숨 늘어지게 자는 것이, 일상사에 지친 육신을 쉬게 만드는 것이고, 비록 자갈만이 가득한 머리도 쉬게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다음에 더 좋고 예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득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 ‘도망’ 갈 줄도 알아라 1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은 몽땅 다 내게서 나와서,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 좋은 것들은 선이자를 떼고, 어떤 때는 선이자가 원금과 같아서,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나쁜 것들은 이자를 잔뜩 짊어지고, 이자가 원금보다 엄청 많이 붙어서, 침소봉대, 바늘이 산봉우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거울에 눈을 굴리면 굴릴수록 집채만해 지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눈사태가 일어나서 걸리적 거리는 것들을 몽땅 쓸어가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런 눈사태에 맞서는 것처럼 멍청한 짓거리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눈사태가 몰려 오거든, 그저 오로지 도망가듯이, 잡소리가 들 어오지 못하게 귀를 막아 버리고, 변명하는 것도 병어리가 되어 입을 막아 버리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니, 콧구멍도 막아 버려라. 괜히 아니 라고 변명하는 것도, 내 입만 아프고,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만 잡아 먹는 괴물이니, 아예 도망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이다. 도망갈 수 없다면, 빙그레 웃으며, 얘기를 들어 주면 아니, 컷등으로 흘려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애늬은이처럼 하루 종일 할 말이 없어서, 반 병어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편하냐고? 아니다. 전혀 불편 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으니, 참견할 것도 간섭할 것도 없으니, 할 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편하고 좋은 것이다. 대신 자판이나 열심히 두드리고 있으니, 심심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자판을 두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고, 자판 두드리면서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노트북이 워낙 구닥다리라서 글자가 잘 찍히나 보는 것이 이 애늬은이가 하는 일의 전부인 것이다. 노트북을 바꾸라고? 이 애늬은이가 작년에 편마비(중풍)라는 불청객의 방문을 받고서, 재활운동으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니, 전혀 불편하지도, 짜증나지도 않는데, 굳이 노트북을 바꿀 생각도 없는 것이다. 때론 불편한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이다. 만지 걸지 마라. 괜히 넘어지면 뼈다구 뿌러진다. 애늬은이라서….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을 쳐라. 중국 나라 옛날 병법에도 삼십육계가 있다. 괜히 쓸데 없이 맞서다가, 두들겨 맞으면, 나만 손해인 것이다. 옛날 중국의 고명한 학자는 ‘군자는 대로 행’ 이라는 문자만을 생각하고, 오랑캐가 쳐들어 왔는데, 대로를만 찾아서 가다가, 오랑캐의 칼에 비명횡사 했던 것이다. 그 고명하신 학자분은 문자만을 외운 것이지, 그 뜻을 생각한 것이 아니 었다. 요런 사람은 고지식한 것이 아니라, 이 애늬은이와 같은 바보멍청이인 것이다. 하긴 이애늬은이보다 짝금 더 바보멍청이인 것이다. 이런 멍청이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 한다는 것은 외골수로 하나만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변화를 읽어서,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괜히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옛날 옛날 오래된 옛날에 한 장군이(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늬으면…) 원정 길 에 한 마을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길 옆에 커다란 말뚝이 있고, 그 말뚝에는 새끼줄이 매듭 매듭 뽕뽕 묶여져 있고, 그 끝은 보이지도 않게 매듭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 기둥 옆에는 ‘이 매듭을 푸는 자는 이 세상을 지배하리라’ 는 팻말이 서 있었다. 그러자 이 팻말을 읽은 장군은, 차고 있던 칼을 빼서는, 날이 시퍼렇게 번쩍이는 칼을 치켜 들더니, 단칼에 그 새끼줄 매듭을 두 동강이 내어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시브 지기 미소 지우며, 말을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어려울수록 그 해답은 단순 무식한 것이고, 쉬워 보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어려운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치거든, 아예 도망을 가라.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도망갈 줄도 알아라.

예쁜 젊은이 파팅!

## 자기 자신을 찾아라(연습해라) 1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세상에 만고 불변의 진리이듯이, 또 하나의 만고 불변의 진리가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단지, 한가지 변수라면,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다. 그렇다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인가? 아니다. 태양도 그저 떠돌이 별에 불과한 것이다. 보잘 것 없는 하찮은 줄개들을 몇 마리 이끌고 다니는 골목대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저,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혼자서 열내고 있는 골목대장인 것이다. 얼마나 속이 좁은지, 자기를 따르는 줄개들이 너무 적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0억년 후에는 자기 줄개들을 다 잡아 먹어 버린단다. 얼마나 속이 좁으면, 자기 줄개들을 다 잡아 먹을까. 하기사 자기 새끼가 아니고, 남의 집 아기들이 줄개 노릇을 하는 것이니 할 말은 없다만... πππππ

나는 인간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없는,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이란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이다. 물론 세상의 중심이라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소중하고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 다 하늘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애늬은이가 무슨 교의 교주도 아니고, 창시자도 아닌,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못생긴 돌멩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십 넘어서 마음 속에 예뻐 하나를 키우고 있으니, 돌멩이 보다는 짝뿔 낫다고 할 수 있으나, 돌멩이보다 먼저 저 쪽으로 건너갈 테니, 돌멩이보다 그닥 잘난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삼천포다.

자기 자신을 찾아라.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거나, 찾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를 떠도는 객체만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지구는 지구로써 존재한다. 주체다. 그러나, 동시에 해님 주위를 맴도는 위성 중에 하나인 것이다. 객체다. 다시 말해서, 지구는 주체인 동시에 객체인 것이다. 우리들 모두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각자는 고유하고 유일한 주체인 동시에 다른 주체에게는 객체로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 할배를 비롯한 모든 성현들 선각자분들이 2% 부족한 것이다. 소크라테스 할배를 빼고, 소크라테스 할배만이 '너 자신을 알라' 고 했던 것이다. 즉, 객체로써 존재하고 있는 나도 있지만, 주체로써의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애늬은이에게 소크라테스 할배가 제일 멋쟁이인 것이다. 소크라테스 할배의 후계자들인 실존주의 할배들 역시 예쁘다. 실존주의 학파의 할배들도,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이다. 인간의 주체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 예쁜 젊은이들도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이 애늬은이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애늬은이가 실존주의 학파를 아느냐 하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공업고등학교 때, 대가리에 겨우 피가 마르기 시작할 때, 그저 잘난 척해 보이려고, 소크라테스 할배부터 니체 키에르케고르 프로이드... 이런 할배들의 책 껍데기만 보았지, 지금은 한 구절도 기억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주 아주 무식한 애늬은이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린 시절에 책 껍데기라도 보아 두었던 것들이, 마음 속에 있는 저장고에서, 행간(between the line) 의미가 새겨져 있다가, 이렇게 써 먹게 되는 것이다. 삼천포다. 자기 자신을 찾아라. 객체로써의 존재는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주체는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주체를 찾으라는 것이다. 주체를 찾지 못하면, 그저 손님인 객체로써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찾으라는 것은 아니다. 괜히 잘못하다가는 산 속에 있는 격리 시설에 갇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쁜 젊은이들은 가끔씩 일년에 한번쯤 빈 시간, 휴가라든지, 연휴 때, 잠깐씩 자신을 주체를 찾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잊어버려라. 잘못하면,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잊어 먹으라는 것이다. 완존히...

예쁜 젊은이 파팅!

상대방을 높여라. 그래야 나도 높아 진다.1

내가 높아지고 싶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러러 보이고 싶다. 그래서 선거판에 뛰어 든다. 근데, 이 놈의 판 대가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차례 때나 하는 큰 절을 하게 만든다.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중들을 높여야 된다. 재미 없다. 그래서, 선거판에서 빠져 나온다. 다시 직장에 다닌다. 신입 사원이라고 모든 고참에게 깎듯이 구십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서 먼저 인사를 한다. 아가씨 고참이라고 예외는 없다. 고참은 고참이니까. 애니꼬와서 그만 둔다. 시장에서 잡상을 한다. 썩지 않는 공산품, 손톱깎기 일회용 면도기 나이론 머리빗 면봉... 여기라고 예외는 아니다. 어떤 손님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먼저 한다. 이것도 자만심 상한다. 그래서, 잡상도 때려 치운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별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배낭 하나 덜렁 둘러메고, 설악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 간다. 개울가에 천막을 치고, 술을 걸고... 장기 투숙할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리고 조잘대는 새 소리를 들으며,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오랜만에 낮잠이나 싹잔다. 후두둑 하는 빗방울이 노크를 하는 소리에 잠을 깬다. 밖으로 나오니, 아직 해님이 구름 넘어 산허리에 걸쳐 있어서, 밝음이 머물고 있다. 비님이 오신지 제법 되었는지, 개울물이 점점 불어나서, 천막 밑까지 쳐들어 왔다. 아까운 천막이며, 일용할 양식이 개울물에 떠 내려갈 것 같아서, 서둘러 천막을 걷어서,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 간다. 개울물이 오지 못할 곳으로, 산 골짜기라서 개울물은 금방 그야말로 눈 깜짝 할 사이에 불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똑똑이가, 멍청하게 개울가에서 작년에 물이 흘러간 흔적이 있는 곳에 천막을 옮기지는 않는다. 그 흔적을 넘어서, 평평한 곳에 천막을 옮긴다. 나는 똑똑하니까... 비가 그치자, 맨 얼굴을 내민 해님에게 꾸밈을 해댄다. 해님! 매일 보는 얼굴이라서 이제 좀 친해졌나 싶어서 그냥 인사도 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빼졌냐고 물어 봤다. 그러자 해님 할배, 할배도 엄청 할배다, 100억년이나 살아온 할배에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 나부랭이가 재롱을 떨고 있으니, 가당치도 않을 것이다. 할배가 바쁘데 말 시키지 말라고, 산자락 너머로 잠 자러 간다.

나는 소중하고 귀한 유일한 존재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각각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늘이라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시간이 백 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너무 길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좌 시간에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므로, 높임을 받아서 당연한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높여야, 내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다. 꼭 내가 높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는 가진 자는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혹시나 내가 가진 것을 잃어 버리거나 앓을까, 도둑놈이 훔쳐가지는 않을까, 사기라도 당해서 쪽박이나 차지 않을까, 불이라도 나서 홀라당 잿더미가 되지 않을까... 요따구 잡 생각을 하느라, 잠을 설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만드는 부자가 되는가 되는 것보다는 내일 먹을 끼니거리가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걸뱅이가 훨씬 잠을 잘 잔다. 약간 삼천포다.

예쁜 젊은이 파팅!

## 자신을 낮춰라 1

자신을 낮추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것이다. 내가 굳이 밑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다. 상대방을 높여 주면, 자연스럽게 나는 낮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삼국지의 유비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유비는 언제나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다. 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라는 고사를 만들어 냈다. 단, 한번 자기를 내세운 적은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우를 잃었을 때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을 앞세우고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려고 한다. 그래야,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예수 할배가 제자의 발을 씻기운 것이나, 부처 할배가 누더기 옷을 입고 탁발을 한 것은, 다 자신을 낮추려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나를 높이는 사람은 나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어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다. 나를 낮추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역으로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신을 무한히 낮출수록, 반대로 무한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인 사람들이 있다. 선거철이면, 어마어마한 공약을 뿌리고 다니는 유력한 후보자님들이 그들이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없고, 돈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이 세상에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단, 조건은 자기 가 당선 되어 의원님이 되고, 나랏님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심지어 어떤 후보는 현찰 박치기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구경하던 명명이 할배도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이 빨갈다고...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미친듯이 날 뛰지만, 선거만 끝나면, 다들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다음 선거철까지 낮잠이나 실컷 자는 것이다. 아무도 깨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것이다. 삼천포다.

가을! 모든 곡물이 여물어가는 풍성한 계절이다. 하늘도 곡식을 익히느라, 구름도 저 쪽 나라에 머물러서, 푸르른 하늘이 예쁜 햇빛을 통행료도 안 받고, 통과 시키다. 그러면, 모든 곡식들은 그 햇빛을 받고서 알맹이가 여무는 것이다. 속이 여물면, 고개를 숙이거나 빠알갈게 여문 옷으로 갈아 입는다. 다 고개를 숙이고, 옷을 갈아 입는데, 그 중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고개를 뺏뺏하게 세우고 거만을 떨거나, 셋 파란 몸뚱이를 내 놓고 허영을 부리려고 있는 것들이 있다. 속이 빈 쪽정어들이다. 곡물만 그런 것이 아니다. 무시기 무시기 토론회에 가거나, 선거 유세장에 가면, 욕만 빼 놓고는 모든 미사어구에 화장을 떡 칠을 해서, 속이 메스꺼울 정도의 언어들만 난무한다. 그들이 씹어서 뱉어내는 말은 단 한마디다.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정답이고, 옳다는 것이다. 백 명이면 백 명 다. 만 명이면 만 명 다. 자기가 옳은 답이라고 뱉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몽땅 정답만을 쓰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하늘이 되는 것이다. 아니다. 하늘은 변화가 속성근본이므로 정답이 없다. 그래서, 집 안에서 즐기고 있는 멍멍이도 귀를 늘어뜨리고 즐기고 있는 것이다. 쪽정이는 알맹이가 없다. 옛날에 이 애늬은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말을 잘하고, 청산유수처럼 조리 있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빨갱이’라는 표현을 했었던 것이 기억난다. 어른들에게 말이란 개념은 이런 것들 이었다. 쪽정이를 골라내는 아주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저 배시시 미소 짓는 예쁜 젊은이가 되라는 것이다. 그게 훨씬 이득이다. 요즘 세상이 너무 씨끄럽기 때문이다. 소음 공해를 더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자신은 흑독하게(죽을 만큼) 그 외는 '관대' 하게 대하라 1

예쁜 청춘들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을 흑독한 시련으로 스스로 몰아 넣어 보라는 것이다. 이 애늬은이가 학생시절에 실제로 해봤던 것인데, 살아 오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보탬이 되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실업계를 가라는 엄마(할마시)의 말에 거의 굶다시피 하는 단식으로 3개월 넘게 보낸 것이다. 결국 실업계를 갔지만, 물을 빼고는 거의 음식물을 먹지 않았던 것이다. 덕분에 위가 많이 적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별 탈이 없었다.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좋았던 것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가 적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속에 탐욕과 탐심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도를 통한 도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렇게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것도, 학창시절의 고행(?)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쁜 젊은이들에게 직접 고생을 해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연습이나 훈련을 해온 사람들은 상관 없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목숨을 내 놓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 확률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 해보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은 괜찮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시행해 보라. 단순 굶기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D 업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땀을 흘려 보라. 그러면, 이러한 경험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소리를 듣는 귀를 바꾸고, 말을 하는 입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것이다. 그만큼 내 마음이 넓어지고, 머리로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위력을 천천히 조금씩 발휘하는 것이고,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진정한 위력을 발휘 한다는 것이다.

역지사지라고 한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알아야,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너무 가족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4명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간에 소통보다는 자기를 앞세우는 문화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금불이가 은 덩어리보다 귀한 것은, 희소성 때문이다. 우리 예쁜이들이 가정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가정에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 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런 귀하고 소중한 대접을 받고 성장한 금불이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간극, 차이가 문제라는 것이다. 금불이가 희소성이 있어야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 돌맹이는 없고, 온 천지가 금불이로 되어 있다면, 그 금불이는 돌보다 못한 금불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자괴심이 생기고, 정체성이 없어져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혼란을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어렵고 힘든 일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껴서, 마음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하는 극기 체험 같은 것으로는 안된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러한 일과성 체험으로는 뇌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쁜 젊은이들의 마음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을 해서 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다. 절대로 절대로... 그래야,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예쁜 젊은이 파팅!

## 감히지 마라1

우리 모두는 갇혀서 살고 있다. 지나간 과거에 갇혀서 살고 있고, 현재에 갇혀서 살고 있고, 미래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산 골짜기에 있는 병원에서 살고 있고, 현재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현실을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미래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구들장을 지고 천장에 미래를 그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연속성에서 살고 있고, 때때로 아주 가끔씩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속성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갇힌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특히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자물쇠로 채워 놓은 경우는 더욱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자물통을 채워 놓으면, 외부와 소통하는 모든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음은 외로운 골방에서 잠만 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음은 외롭고 힘이 들어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자물쇠를 열고 외부와 소통을 하지만, 금방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 그저 자신을 가두는 하나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갇히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갇히지 않으려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연결선상에 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선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막연히 미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망과 꿈이라는 미래를 만들어서,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현재가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동물적인 현실이 아니라, 현재가 미래의 꿈과 희망에 포함되는 미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미래는 모른다. 간혹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아주 적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나 티끌 같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머리를 비워서 그런 말들이 그냥 흘러 지나 가도록 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내게서 나와서, 내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오염되지 않기 때문이고, 하늘이 오염물질을 치우느라고 청소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 쪽으로 건너 가서, 재판을 받을 때, 풀 오토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삼천포다.

현재를 지금을 미래의 희망과 꿈에 연결 시키는, 연결선상에서 해석을 하고,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현명한 예쁜 젊은이들인 것이다. 현재를 과거라는 헛깨비와 묶어 버리면, 현재도 과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기에 헛깨비인 것이다. 그러니, 현재를 헛깨비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를 미래의 꿈과 희망과 묶어 버리면, 현재는 미래가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꿈과 희망을 위한 미래의 것이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각자의 몫인 것이다. 이 애늬은이가 선택을 하려면, 미래를 선택할 것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애늬은이는 마누라에게 쫓겨 나고, 이혼 당하고, 한 세기를 거의 살아온 할마시(엄마)에게 얹혀서, 살고 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 처지에 작년에 편마비(중풍)에 걸려서도, 웃으며 살고 있다.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인생관에 충실하기 위해서, 웃으며 살다, 웃으며 간다라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 속에 예쁜이를 하나 키우고 있다. 예쁜이는 마음 속에서 꽃밭에서 혼자서도 잘 놀고, 잘 크고 있다. 그러니, 예쁜 젊은이들도 마음 속에 신앙이든 믿음이든 예쁨이든, 뭐든지 하나씩 키우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갇히는 것을 막아 줄 것이다. 마음은 한 개 뿐이기 때문이다.

## 미리 준비 해라

인생살이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몇 안되고, 극히 일부분은 낙오자가 되어 버려서, 인생의 주변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주팔자에 운이 좋아서, 하늘이 도와주고 베풀어서 조상 덕에 성공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없다. 그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구실이고 핑계일 뿐이다. 모든 성공에는 성공을 위한 준비를 얼마만큼 열심히 준비하였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사전 준비를 만들지 않으면, 성공은 없는 것이고, 뜬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말고사를 앞 둔 학생이 시험 준비, 공부를 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면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낭비 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인 것이다. 도둑놈이 나쁜 이유는 남이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것들을, 조그마한 자신의 노력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교환 가치가 커다란 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정당한 거래를 하려면,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교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그 만큼만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지, 공짜는 없다. 그래서, 미리 준비 하라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뭐를 준비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지극히 정상이다. 그것은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머리 속에는 엄마 가슴을 빌어서,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쌓여 있던, 모든 개인적인 세상사가 다 들어있어서, 고놈들이 서로 옳다고 뽐박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마음 속에 숨겨 놓은 것이다.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나간 과거에서 찾으려 하면 된다. 지나간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는지를 찾으려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이 내 가슴에 숨겨 놓은 보물인 것이다. 하늘의 선물을 찾을 때, 한 가지만 빼 버리면 된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가치 기준이다. 특히, 금전 돈에 관계된 것은 무조건 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돈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돈은 금전은 인간 세상의 것이기에, 하늘은 돈이나 금전으로 선물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의 선물을 찾을 때는, 인간 세상에서나 필요한 돈이나 명예 따위는 절대 생각조차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이 내 가슴에 심어 놓은 선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인간 세상에서나 존재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물을 찾으려 한다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지나쳐 가는 수 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방황하다가 저쪽으로 넘어 가는 것이다. 하늘의 선물을 찾은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방송된 중국 폐광촌에 사는 예쁜 할매 얘기다. 예쁜 할매는 폐광촌에 버려진 기형아들을 좇아다 돌보고 있다. 버려진 집에서,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옷들을 주워다가, 빨아서 예쁜이들에게 입히고, 밥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문전걸식으로 동냥해 온 밥을 예쁜이들에게 먹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예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쁜 할매가 하늘의 선물을 푼 것이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예쁨인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잣대인 것이다.

짜를 찾는 도전자 파팅!

수다는 환갑 지나고 해도 된다

예쁜 청춘들이 수다를 떨고 있다. 제목도 관심사도 주제도 가지 가지다. 원래 수다란 것이 영역도 한계도 한계도 없는 것이니, 그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니, 필요한 것도 준비할 것도 없는, 프리 토킹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녹음이나 기록도 필요 없고, 머리를 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리는 쉬게 하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쏟아 부으면 되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저 눈이나 마주 치면서, 녹음해 놓은 '맞아' 만 되풀이 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다는 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떨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애늬은이는 조금 아주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수다는 이 다음에 늙어서, 노인정에 가서 떨어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애늬은이는 수다 떠는 것은 별로다. 아는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기 때문이다. 쌀 가격은 팻말에 써져 있고, 막걸리 값은 바-코드기가 알아서 계산해 주고, 떡볶이 값은 메뉴판에 적혀 있고, 버스비는 교통카드가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 없어도, 눈으로 읽으면 되기 때문이다. 거기다 참외 값, 고등어 자반 값, 양파 값 등은 확성기로 크게 울려 퍼져 나오니, 귀는 아직 먹지 않아서, 방 구석에 처 박혀 있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정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노트북을 펴놓고 자판을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말이 거의 필요 없다. 거기다가 수다를 같이 떨어줄 사람이 없으니, 짝꿍은 불쌍하다. 모기다 10월이 시작 되었는데도 모기가 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 애늬은이는 할마시(엄마)보다 모기가 더 무섭다. 피만 달라면 줄 수 있는데, 꼭 모기가 문데는 가려움증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싫어한다. 아니, 증오한다. 삼천포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수다를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 일상에서의 수다란, 양념과 같은 것이다. 김치에 불고기에 양념이 없으면 맛이 한가진 재료 본래의 맛만 있는 것이다. 배추를 그대로 먹으면, 배추 맛만 난다. 그러나, 그런 배추를 절여서, 갖은 양념을 하면, 김치가 되고, 생배추에 양념을 더하면, 겉절이가 되는 것이다. 소고기를 그냥 구워 먹으면, 구이가 되지만, 똑 같은 소고기에 고추장 양념, 불고기 양념, 스테이크 양념을 하면, 각각 다른 음식이 되는 것이다. 맛있다. 그런데, 양념 맛이 너무 많이 첨가하게 되면, 본래 배추의 맛이나 고기의 맛이 사라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다도 수다만을 위한 수다가 되어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수다란, 일상 생활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이고, 양념이기 때문이다. 양념이 양념의 경계를 넘어서, 본질이 되어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까지가 경계라고 하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수다를 떠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말기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저, 한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다. 양념이 본질이 되지 않게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수다가 아닌 주제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족간에 대화가 빈곤한 것도,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쁜 청춘들은, 이런 훈련을 많이 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이 다음에 결혼을 하고, 예쁜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쁜 청춘들에게 조언 한가지, 이 다음에 예쁜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받았을 때, 많은 얘기를 해 주라는 것이다. 그러면, 예쁜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마음 속에 있는 저장고에 보관 했다가, 이 다음에 잘 활용할 것이다.

짜을 찾는 도전자 파팅!

후회는 절대 절대 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후회를 매일 한다.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 속에 신앙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성직자분들이나 아직 마음이란 것이 아예 없는 예쁜 갓난아기이거나, 마음마저 다 버린 도사님... 이런 사람들뿐이 없다. 그저, 일상에 갇혀서 사는 평범한 우리들은 후회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현실이고, 현재에 살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는 어제의 연장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다. 그것은 생각 없는 갈대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하는 갈대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다. 우리들 모두는 생각하는 갈대다. 간혹 생각 없는 갈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꿈과 희망이 없다. 지나간 과거만을 되새기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무표정 하거나, 인상을 팍팍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을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의 꿈과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미소 지으며, 웃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괴롭고 힘든 날이었지만, 내일은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미소가 피어나는 것이다. 어떤 삶을 오늘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똑 같은 오늘이지만, 그 오늘을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몫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후회는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후회는 지나간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것은 현재고, 지금이기 때문이다. 후회라는 헛깨비를 아무리 붙잡고 씨름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에 삶에 모기 눈꼽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다. 헛깨비와 씨름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 하고, 부질 없는 것이다.

짜을 찾는 도전자 파팅!

취미를 무조건 만들어라

취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면 된다. 내가 가진 것 안에서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무조건 내가 하면, 내가 즐거운 것이면 된다. 이러한 취미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다음에 내가 정년퇴직을 하고서 써 먹을 것이다. 이러한 취미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노인정 정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버스 승객 숫자나 세어보는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는 것이다. 이 애늬은이는 문학이나 철학과는 전혀 모기 눈썹 만큼도 상관 없는 오리지널 공돌이, 공고에 공대를 나오고, 공장에서 반평생을 살아온, 애늬은이에 불과하다. 그래도, 이렇게 일년이 넘도록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어린 학창 시절에 읽어둔 책들의 힘인 것이다. 그렇게, 오십도 훌쩍 넘긴 나이에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예쁜 청춘들도 나중에 써 먹기 위해서, 취미를 하나씩 꼭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다. 그럼, 일년이 재미있고, 십년이 재미있고, 노년이 아름다울 것이다. 취미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간사의 가치 기준을 다 벗어 버리라는 것이다. 하늘이 내 가슴에 심어 준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하늘이 내 가슴에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애늬은이처럼 저 쪽으로 건너가기 전에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젊은 시절에 부닥치고, 깨지며 경험해 보면 되는 것이다. 하늘의 자는 인간 세상에서 사용하는 자와는 다른 것이다. 하늘의 자는 눈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도, 머리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다.

취미를 만들어라.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라. 금방 시들해지는 것은 하늘이 내게 마음에 심어준 선물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인 것이다. 단순한 호기심을 하늘의 선물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단순한 호기심은 그저 그 때만 반짝하는 번갯불과 같은 것이다. 그 번갯불이 아무리 밝고 뜨거워서, 거목을 쓸어지게 하고, 바위를 쪼개어도, 그것은 순간적인 찰나에 불과한 것이다. 위력은 있지만,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늘의 선물이 아닌 것이다. 하늘의 선물은 내가 저 쪽으로 건너갈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야, 인간들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 그런 하늘의 선물을 찾으라는 것이다. 하늘의 선물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내 손을 빌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 선물의 원 주인은 하늘인 것이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은 그런 사람에게는 선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 선물을 회수해서 도로 선물 보따리에 저장해 두는 것이다. 그러니,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선물의 원래 주인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내가 봉어빵을 아주 잘 만들어서, 세계 제일이 된다고 하여서, 내 아들까지 봉어빵을 잘 만들어서, 세계 제일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건 내 아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았을 경우이고, 다른 선물을 받았다면, 내 아들이 봉어빵 굽기가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겨 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공평한 것이다. 세습이란 북쪽에 있는 망령난 할배의 조상이 억지로 갔다 붙인 것이지, 하늘에 있는 사전에는 그런 단어조차 없는 것이다. 취미를 만들어라. 내 노후를 위해서...

짜를 찾는 도전자 파팅!

같은 곳을 봐라

예쁜 젊은이들이 서로 마주보며, 도란도란 사랑 얘기를 하고 있다. 예쁘다. 한 사람은 열심히 얘기에 열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귀 기울여 들으면서, 방글방글 웃고 있다. 예쁘다. 서로 마주 쳐다보는 눈에도 예쁨이 가득하다. 사랑은 마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족한 것이다. 단, 애늬은이가 볼 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서로 마주 쳐다 본다는 것이다. 서로 마주쳐다 보는 것도 좋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서로 마주 쳐다보는 것은 호기심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호기심이 사라지면, 마주 바라다 보는 것도,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무관심이나, 그냥 쳐다보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마저 시간이 지나면서, 꼬투리를 찾는 것, 단점을 찾으려는 탐색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때 즈음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히틀러 망령난 할배가 내부의 불만을 분출할 돌파구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러한 역사는 문자로 남기기 전부터 있어왔던, 아주 비열하고 유치한 방법이지만, 자주 애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런 변환의 한 가지 방법으로, 서로의 관심사나 에너지를 분출할 대상을 외부에서 찾으라는 것이다. 봉사도 좋고, 예능도 좋고, 문학도 좋고, 그 어떤 대상이라도 아무런 상관도 없다. 무조건 찾아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대상을 찾지 못하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조만간에 둘 사이에 끼여 들고, 그것이 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틈을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고, 애 늬은이에게 물어 보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본성인 자연의 일부분인, 우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라고 밖에는 답을 하지 못한다. 워낙 무식해서 그러니, 이해 바라고... 어쨌든, 서로 마주쳐다 보는 것보다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그 곳으로 시선과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나는 아니더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같은 종교를 갖는 것도 좋은 것이고, 서로 다른 믿음을 갖는 것도 괜찮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다. 어떤 것이든지 상관 없으니, 각기 다른 것을 쳐다보고 나아갈 것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마주 쳐다보면,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정 없으면, 춤바람이라도 나는 것이, 내가 내부에 가두고 폭발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없이도 잘 넘어갈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것이지만, 인간이란, 자연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본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나를 정체 시키는 것이고, 정체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음과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을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 쪽에서만 일어나면,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에게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꼭! 예외는 없다. 그래서, 가능 하면, 같은 곳,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곳, 한 곳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필요한 것은, 서로 마주보고 찾는 것, 자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그저 대안이라면,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서, 서로 다른 벽면을 쳐다보면서 도를 닦는 수 밖에는 없다.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대안 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무지무지 어려운 것이다. 가장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다.

짜를 찾는 도전자 파팅!

## 짜을 찾는 예쁜 청춘들에게 당부하는 말

블로그    편마비(중풍)극복기, 예쁜 청춘, 멋쟁이들에    <http://blog.daum.net/raisunk>

저자    바보대장

발행일    2012.09.27 11:47:39

 블로그